

2016년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 발표회

마음의 관리? 마음의 권리!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무엇을 묻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2016년 '자몽(自夢)'의 곁에서 동행하는 '몽실(夢實)'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했습니다.

'몽실' 프로젝트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식순

2015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회

일 시 2017년 2월 16일 (목) 오후 2시~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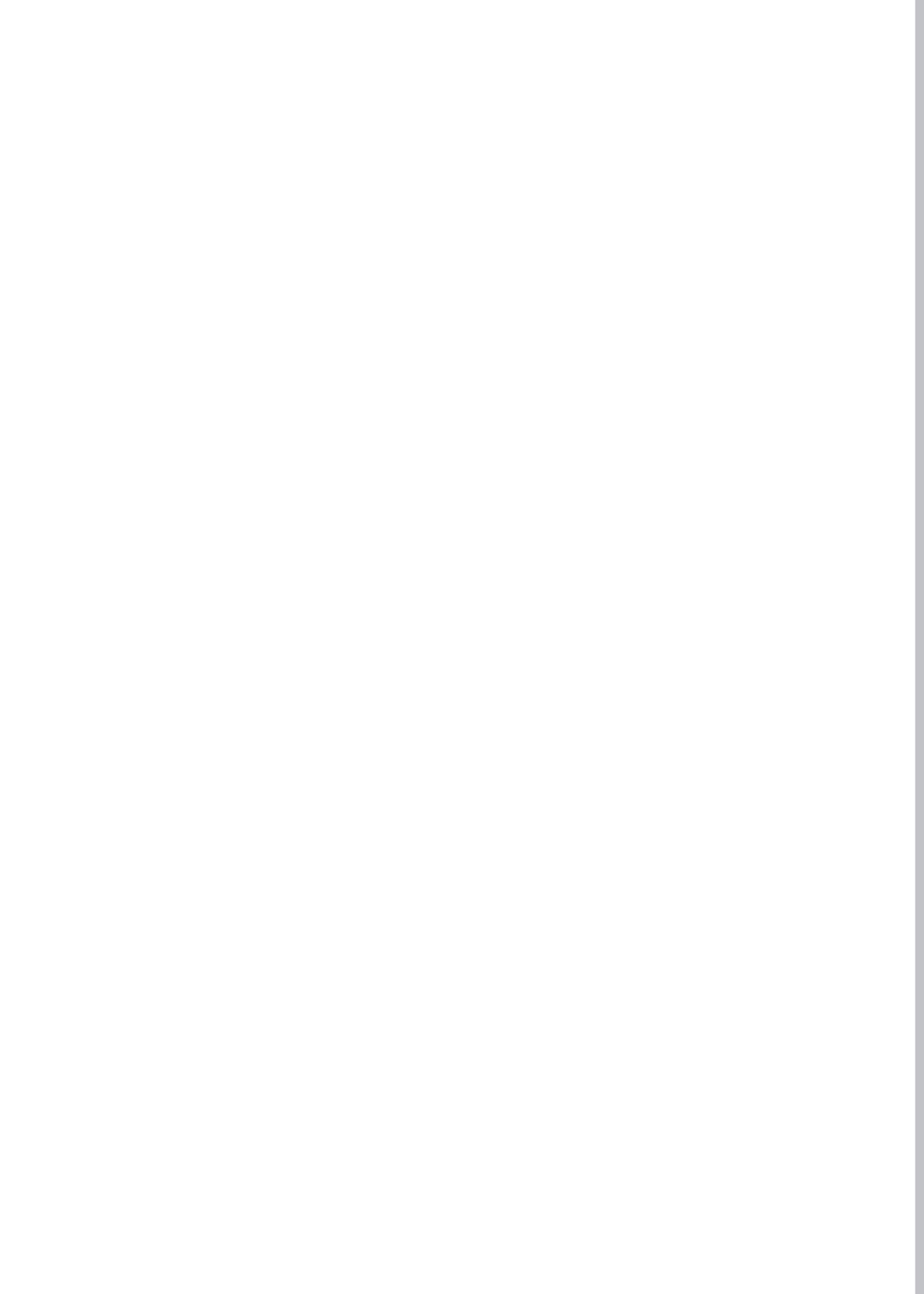
장 소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사 회 날맹 (인권교육센터 '들')

오후 2시 ~ 2시 10분	서로 인사 및 몽실 소개
오후 2시 10분 ~ 3시	[발제] 마음의 관리? 마음의 권리 :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무엇을 묻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발표자: 배경내_인권교육센터 '들'
오후 3시 ~ 3시 15분	쉬는 시간
오후 3시 15분 ~ 4시	[토론 1] 전다예_늘푸른자립학교 청소년 [토론 2] 우승연(라이더) _ 비온뒤무지개재단 부설 별의별상담소 상 근상담가 [토론 3] 심아라 _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부설 경기위기교육 센터 활동가
오후 4시 ~ 5시	질의응답과 종합토론

목차

몽실 프로젝트 소개	7 p
[연구 발표문]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무엇을 묻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11 p
Ⅰ. 연구에 들어가며	12 p
Ⅱ. 청소년은 심리정서치유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17 p
1. 무엇이 청소년의 저항을 낳는가	17 p
2. 의미있는 치유 순간은 어떻게 찾아왔나	40 p
Ⅲ. 청소년과 함께하는 심리치유, 무엇을 더 질문해야 하는가	56 p
1.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	55 p
2. 치유작업자들과 '치유적 공동체'는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58 p
3. 치유의 목표로서 '자존감'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63 p
Ⅳ. 나가며 - 청소년의 감각과 통찰이 일러주는 길	67 p
토론문	72 p
상담의 기본이자 시작점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 전다예	73 p
상상력, 위기/청소년의 마음을 듣다 - 우승연	75 p
1%의 어떤 것 - 심아라	78 p



2016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

마음의 관리? 마음의 권리!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무엇을 묻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몽실’(夢實) 프로젝트 소개



‘몽실’(夢實) 프로젝트 소개

■ ‘인권교육센터 들’은...

〈인권교육센터 ‘들’〉은 2008년 2월, 인권교육의 원칙을 버리면서 풍성한 실천을 일구어내기 위해 모인 인권활동가들이 창립한 인권교육 단체입니다. ‘들’은 인권교육이 인권교육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천하며,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비롯한 인권의 주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연대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통해 지지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권교육센터 ‘들’〉이 인권교육 활동을 하며 계속해서 연대하고 함께해온 활동이 바로 청소년인권 활동이었습니다. 인권교육이 인권의 현실과 결코 따로 갈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들’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등에 연대하면서 청소년노동자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 등에 관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인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을 만나며 청소년인권의 이야기를 나누고 청소년인권 논의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자몽과 함께한 ‘몽실’ 프로젝트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은 2015년부터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 자몽(自夢) 사업’을 통해 청소년자립지원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들’은 〈함께걷는아이들〉의 요청으로 2015년부터 ‘자몽’ 모니터링 단체로서 ‘몽실(夢實)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자몽’을 탄실하게 만들고, ‘자몽’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몽실’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모니터링의 본래 목표는 지원을 받는 기관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함께 헤아리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몽실’은 형식적인 평가나, 현장과 멀리 떨어진 검사 또는 감시처럼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현장을 응원하는 벗이 되어 모니터링 역할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모니터링의 핵심은 ‘자몽’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서로 만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자극이 되며, 청소년자립에 대한 더 풍부한 아이디어와 실천이 꽃필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매월 진행된 네트워킹과 교육을 위한 만남, 현장방문 인터뷰, 현장 지원 교육 등이 ‘몽실’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입니다. 더불어 현장의 고민을 받아안아 매년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연구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자몽’ 사업들이 진행하고 한데 모아준 여러 이야기들을 다시금 녹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 ‘몽실’의 목표는...

- 개별 사업 현장에 지속적인 피드백(소통과 연결)을 제공해 사업 주체가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자립을 바라보는 지배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의 실제 삶과 경험을 반영한 자립 개념과 자립 지원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며 함께 해결해야 할 정책적·사회적 과제들을 모색하는 기회를 엿니다.
- 사업 참여 주체들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여 서로 배움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 자몽 사업 결실이 청소년을 지원하는 더 많은 기관과 모임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정리하고 발표회를 기획합니다.

■ 자몽 사업 참여기관은...

2015년

기관명	사업명
일하는학교	학교밖청소년의 진로동기향상을 위한 돌봄일거름 프로젝트
교육공동체 제프	자아독립 프로젝트
성북 청소년자활지원관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
늘푸른자립학교 마포	“I'DREAM” ‘나 들여다보기’를 통한 위기청소년의 자립기반마련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커피동물원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매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커피동물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광주 보호관찰소	'멘토·멘티와 함께 미래를 향해 꿈을 꾸다'
대자원	보호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자립지원 서비스 『참 좋은 내일을 위해』

+ 협력 참여기관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 청소년자립랩 '이상한나라'

2016년

기관명	사업명
커피동물원	커통은 출장 중 (일본 커피 탐험 프로젝트)
늘푸른자립학교 마포	「자몽-T」 - 스스로 꿈을 이뤄가는 시간(time): '나 들여다보기'를 통한 위기청소년의 자립기반마련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꿈꾸는아이들의학교	감.잡.았.셈. (感. JOB/雜. What's. up.)- 다포시대. 모멸감, 만능감, 불능감, 단절감을 잡(JOB,雜)아가는 청소년에게 안부를 묻다.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날자! (날마다 자라는 나무) - 심리치료, 인턴쉽 등
여성인권 동감	2016년 위기 청소년 자아성장심리프로그램 "소·나·기 인권 멘토링 학교"(소통·나눔·기쁨)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멘토와 함께하는 성폭력피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키움학교'
희락원	시설보호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높이 날자' 프로그램-N.O.P.I(New Opportunity for the Power of Independence) FLY-

+ 협력 참여기관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 청소년자립팜 '이상한나라'

■ 몽실의 연구 주제는...

2015년

- 청소년의 자립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6개의 대안적 자립 개념
- 청소년 자립, 기술에서 역량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량 접근

2016년

- 마음의 관리? 마음의 권리!: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무엇을 묻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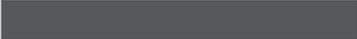
2016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

마음의 관리? 마음의 권리!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무엇을 묻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연구 발표문



마음의 관리? 마음의 권리!

-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무엇을 묻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 인권교육센터 들, '몽실'(夢實) 프로젝트팀

I. 연구에 들어가며

'인권교육센터 들'은 2015년부터 '위기청소년'¹⁾ 자립지원기관들을 만나면서 자립이라는 언어에 인권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거울은 "비상(非常)이 일상"인 삶을 살아가는 그/녀들이 자립이라는 말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가장 먼저 비추었다. 삶에 도래한 다양한 위기들 앞에서 넘어지고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는 그/녀들의 고군분투가 보였다. 우리는 자립이라는 말이 그/녀들에게 조금은 덜 외롭고 조금은 덜 초조하며 조금은 덜 삭막하고 조금은 덜 스산한 언어가 되기를 바랐다. 당연히 '홀로 살아남아 너의 쓸모를 증명하라'는 기존의 자립 개념을 해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칠혹 같은 자립의 밤하늘에 대안적 자립 개념을 담은 여섯 개의 별을 쏘아 올렸다.

불안정한 사회에서 삶터도 생계비도 신분도 불안정한 청소년들에게는 더욱더 유동적인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은 '유동하는 자립'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었다. 사회를 고치려 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비정상', '결핍', '문제'라는 낙인을 찍어 고치라 명하는 일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라는 분노는 '조건없는 자립'이라는 개념을 낳았다. 청소년기를 다만 자립을 '준비'하는 훈련단계로만 설정하는 일은 인간의 시간을 너무나 고정적이고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일이라는 깨달음은 '지금 현재의

1) '위기청소년'이라는 개념과 그 개념이 유통되는 과정에는 대개 문제, 일탈, 위험, 결핍, 부적응, 장애, 질병 등의 이미지가 결부되어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삶의 특정한 위기 국면을 통과하는 청소년들을 '위기청소년'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접근하는 것은 타당한가, 삶의 다양한 굴곡을 '위기'라는 말 하나로 집단화하는 것은 타당한가, 이러한 분류 자체가 낙인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럼에도 '위기청소년'이라는 말은 법·정책적 기반을 갖고 있기에 널리 쓰이고 있어 이를 마땅히 대체할 말을 찾아내기도 힘들다. 이에 잠정적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과 긴장을 드러내기 위해 '위기청소년'에 따옴표를 붙여 사용하기로 한다.

자립'을 요청했다. 정해진 시기 동안 정해진 척도에 따라 과업을 완수하라 내모는 '토끼몰이식 자립'은 모퉁이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근력을 키워나가기도 하는 '지속가능한 자립'이라는 언어로 대체되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기 모습을 형성하고 관계 속에서 삶을 재건하기도 한다는 깨달음은 의지는 하되 의존은 하지 않는 '관계적 자립'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힘들어도 선택하고 자기 중심을 잡아가는 경험은 굴곡은 있어도 '색깔 있는 삶'을 가능케 한다는 발견은 '주체적 자립'이라는 개념을 영글게 했다.

이 여섯 개의 대안적 자립 개념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몸과 정신, 태도, 습관, 능력들에 하나하나 점수를 매기면서 그/녀들의 자립준비도를 측정하려 드는 자립척도부터 폐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마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이 중심이 된 역량(capability) 연구들을 참고하여 우리는 청소년의 존엄한 삶을 가능케 하는 자유이자 기회로서 '청소년 자립 역량' 목록을 재구성했다. 주요 범주로는 ▶자기결정과 유대(존엄하게 대접받기/사회적 유대 조직하기/다른 종(species)과 공존하기) ▶안전과 존엄(생명과 건강 이어가기/자율적 공간 갖기/신체적 통합과 안전 확보하기) ▶감수성의 확장(감각·생각·표현의 주인되기/감정에 깨어있기) ▶시민으로서의 삶(경제적 자율성 갖기/일에 대한 통제권 갖기/정치적 힘 갖기) ▶인생예찬(놀이)와 같은 다섯 가지 영역이 제안되었다.²⁾

이듬해인 2016년, 우리는 청소년들이 어떤 구체적인 경험과 만남, 맥락과 조건 속에서 자립 역량을 기르게 되는지에 현미경을 대어보고 싶었다. 그러다 기존 청소년 자립척도들을 접한 청소년들이 자립의지나 심리정서 상태, 사회성과 관련된 척도문항에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를 환자로 보는 거야?" 이 한마디로 압축되는 그/녀들의 반응에는 분명 삶에서 축적된 맥락이 깔려 있을 터였다. 너흰 아직 어리다거나 준비가 안 되었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와 같은 비난보다 정신적인 문제를 지닌 존재로 취급받는 일이 왜 더 큰 분노를 자아내는지, 그런 위치에 놓인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지 우리는 좀더 다가가 보기로 했다.

'위기청소년' 자립지원현장을 둘러보니 정서지원 멘토링, 예술치료, 심리·성격검사, 심리상담, 아동전문치료,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정신보건센터나 병원 연계 치료 등 다양한 이름과 형식으로 심리정서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자립지원기관을 만나기 전부터 교육부, 보건복지

2) 자세한 내용은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 자립" 밖에서 자립 찾기」 몽실 연구발표회 자료집(2016년 2월 16일)을 참고하면 된다.

부,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 위(Wee)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하여 각종 사설 상담소나 치료실에 맡겨진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삶에 도래한 위기상황으로부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위기청소년’이라는 개념이 현실에서는 외려 ‘심리정서적 문제를 안은 청소년’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는 경향도 발견했다. 정서불안,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충동조절장애, 중독과 같은 음습한 말들이 그/녀들에게 덧씌워져 있었다. 그/녀들의 심리정서 상태가 바로 ‘위기’(부적응, 비행, 일탈, 가족의 파경 등)의 원인인 양 해석되기도 했다. 청소년 자립과 관련된 보고서와 실무자들의 언어실천에는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적, 사회적 자립도 불가능하다’는 문장도 자주 출현했다. “위기청소년을 (예비)범죄자로 보기보다 아픈 아이들로 봐주세요”라는 호소는 엄벌주의를 외치는 목소리에 비해 더 온정적인 접근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이 모든 상황에 인권의 현미경을 비춰보면 어떤 진실이 떠오르게 될까.

감각은 몸에 보내온 마음의 신호다. 사랑, 기쁨, 설렘과 같은 환한 감정뿐 아니라 슬픔, 외로움, 분노, 좌절감과 같은 어두운 감정들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2016년 우리가 제시한 청소년 자립역량 목록에도, 감각에 깨어있고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마음의 진원지를 헤아릴 언어를 갖는 일은 인간 존엄을 위한 필수적인 역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누구나 그러하듯 ‘위기청소년’도 마음의 역량을 기르는 일은 뒷전으로 삼으라 속삭이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구나 그러하듯 ‘위기청소년’도 환자는 아니지만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닌 삶을 살아간다. 누구나 그러하듯 ‘위기청소년’도 심리정서지원을 필요로 하고, 그/녀들의 삶의 이력은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을 각별히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심리정서사업이 청소년들을 존엄하게 대접하며 그/녀들의 존엄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불신과 좌절을 안겨준 채 통제나 처벌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겨 주거나 그/녀들에 대한 편견을 키우는 악순환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네 가지 쫓대들 세운 뒤 심리정서지원사업들의 속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 청소년을 심리정서적으로 무력화된 존재나 문제적 존재, 환자와 같은 이름으로 대상화하지 않을 것, ▶ 청소년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삼지 않을 것, ▶ 인간의 마음을 외부에 의해 함부로 진단/관리/조절/통제/치료할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료’가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하는 치유’ 작업이 되기 위한 요소를 찾아낼 것³⁾이 우리가 세운 쫓대였다. 때

3) 이 글에서는 ‘치료’와 ‘치유’를 혼용해서 쓰되, 다른 뜻을 지닌 말로 쓰고 있다. 흔히 상담/의료 권력의 시선에서 내담자/환자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과정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치료’라는 표현을, 내담자/환자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힘을 찾아나가도록 지

마침 2016년 자몽(自夢)사업에도 청소년의 심리정서지원을 목표로 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어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현장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관련 문헌들을 먼저 살폈고, 청소년 자립지원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을 만나 고민을 들었으며, 청소년과 함께 치유작업을 진행한 네 명의 치유작업자⁴⁾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차례의 전문가 초청 워크숍⁵⁾도 함께 가졌다.

이름	소속
남일량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부설 경기위기교육센터 심리지원단
노경자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부설 경기위기교육센터 심리지원단
이진/이두현	나로살기센터, 여성인권 동감 '소나기멘토링학교' 멘토
최현정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대표

연구의 핵심은 학교 위(Wee)클래스나 위센터에서부터 시작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지역아동센터, 보호처분기관 등 기관이 연계한 다수의 심리정서치료 경험을 가진 청소년 6인⁶⁾과의 인터뷰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치료자나 정책가의 시선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어떤 치료접근이 효과적인지를 다룬 문헌은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정작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녀들이 심리정서치료과정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분석하거나 그/녀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낸 문헌은 찾기 힘들었다. 심리정서지원이나 상담·치료 영역에서 얼마나 청소년이 대상

원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치유'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 4) 청소년 심리정서지원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상담원, 임상치료사, 예술치료사, 청소년상담사, 상담·치료사 등 관할 부처나 자격증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조금씩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모두를 통칭하여 '치유작업자'라고 부르기로 한다.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맥락에 따라 '상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 5) 트라우마 심리치유센터인 '사람마음'의 대표 최현정 씨와는 인권에 기반한 심리치유의 원칙에 대하여,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신인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근무했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영역에서 활동해 온 하성민 씨와는 청소년 상담의 역사적 흐름과 현황에 대해 워크숍을 진행했다.
- 6) 인터뷰이가 된 청소년은 2016년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에 참여한 기관의 소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치유작업자 역시 자몽 참여기관의 심리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들을 만났다.

화되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녀들은 반짝거리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훌륭한 통찰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만난 청소년들의 상담·치료 경험은 대략 아래와 같다.

이름 (가명)	나이 ⁷⁾ /성별	상담 경험
박우영	22세/여	학교, 아동학대 보호쉼터, 쉼터 등에서 연계한 상담 경험 다수. 아동학대 보호쉼터에서 정신병원으로 보내져 6개월간 수용된 경험 있음. 또래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함.
양정우	17세/남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심리검사 경험. 6호 처분(소년법상 감호위탁) 보호기관에서 상담 경험.
이민수	17세/남	위클래스에서 상담 경험 시작.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심리검사 경험. 6호 처분(소년법상 감호위탁) 보호기관에서 상담 경험
이의진	19세/여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담 경험 시작. 중1부터 학교 위클래스 상담 꾸준히 받음. 쉼터에서 연계한 정신병원 진료, 상담치료센터 연계 경험 있음.
정유현	19세/여	중2부터 학교 상담 시작. 음주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 있음. 가족상담도 경험. 늘푸른자립학교에서 자서전 쓰기 수업 참가.
전지예	20세/여	중1부터 학교상담 시작. 쉼터에서 심리치료와 관련된 다수 집단프로그램과 개별상담 경험 있음. 청소년상담사가 되는 것이 목표

7) 나이는 인터뷰 당시인 2016년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아닌, 연(年) 나이로 기재하였다.

II. 청소년은 심리정서치유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1993년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광장'이 개원한 이래 청소년 상담이나 심리치료 영역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돼 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청소년 상담 정책이 법제화되고 청소년대화의광장이 이름을 바꾼 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신)이 준정부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정책적 위상도 높아졌다. 청소년, 특히 '위기청소년'의 삶으로 심리정서지원사업이 아동·청소년 복지나 위기지원,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파고드는 현상이 급물살을 탔다. 지역마다 자원에 편차가 크긴 해도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심리지원사업과 연계될 기회가 많아진 건 사실이다. 늘어난 기회만큼 청소년의 삶과 정신세계는 더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졌을까.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쉼터 등에서 만나는 상담·치료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있을까.

우리가 만난 몇몇 청소년과 치유작업자, 청소년자립현장 실무자들의 이야기만으로 청소년 심리정서지원 사업과 시스템 전반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어디에서, 어떤 치유작업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만났느냐에 따라 청소년이 심리정서지원사업에 보이는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심리정서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자립현장이나 치유 관련 기관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점검하면 좋을지를 찾는 데 유효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무엇이 청소년의 저항을 낳는가

“(심리검사 한번 받아보라거나 상담이 좀 필요한 거 같다는 말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기분 더럽죠. 치고 싶죠. 학교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너 문제 있으니까 상담 좀 받아봐. 좇같았어요, 솔직히 좀.”

- 이민수

“저는 상담을 받고 점점 이야기하는 게 싫어졌어요. 다 최악이었어요.”

- 이의진

“비슷한 상처나 힘든 일을 겪은 친구에게 상담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권할 것 같아요?) 애들이 안 받으려고 해요. 인식 때매 안 가려는 애들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쪽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저랑 똑같이 나쁜 경험을 한 아이들도 있고. 권유는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 박우영

“(상담시간이) 좋고 기다려지는 시간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 정유현

우리가 만난 청소년들은 ‘좋고 기다려지는 시간은 아니었다’에서부터 ‘모두가 최악이었다’까지 심리상담이나 치료 경험에 대해 크고 작은 거부감을 드러냈다. 괜찮은 상담자를 만난 기억도 있고 나중에 또래상담가가 되겠다는 포부도 가진 박우영 역시 친구들에게 쉽게 권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 심리상담이나 정신과적 치료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진 편견은 깊은 편이다. 사람들은 타인이 나를 관찰의 대상으로 본다거나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를 감안해도 청소년들이 보이는 저항감은 비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강렬한 편이다. 치유작업자인 이진 역시 청소년들이 “상담의 무늬만 가진 상담을 경험하고 와서 보통 다 거부감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외국이라고 해서 그리 사정은 달라보이지 않는다. 『효과적인 청소년상담』의 저자인 Janet Sasson Edgette 역시 상담현장에서 “성나고 몹시 우울한, 도망치고 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도 요청하지 않는, 도움을 요청해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또는 도움을 받아들이지만 그들의 기대와 필요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을 늘 접한다”⁸⁾고 말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 “왜 해야 해요?” - 비자발적 시작

비청소년들⁹⁾은 자기가 겪고 있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제 발로 치유현장을 찾아오

8) Janet Sasson Edgette, 『효과적인 청소년상담』, 학지사, 2013, 10쪽.

9) 민법상 성년(成年)에 도달한 이들을 일컫는 성인(成人)이라는 말은 미성년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완성되지 못한, 아직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 놓인 존재라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 가능한 말이다. 성인과 동의어로 자주 쓰이는 어른이라는 말 역시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에는 ‘얼이 큰 사람’, 곧 어른이 없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비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쓰기로 한다.

는 경우가 많은 반면, 청소년들은 비자발적으로 치료현장에 떠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만난 청소년들 역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납득할 만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상담·치료를 시작했다. 기관에서 정한 프로그램이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기도 했다. 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는 센터에 다니는 청소년 중 그룹홈에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 한 명당 3~4개씩이나 상담을 받고 있을 정도라면서 “약간만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담을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청소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준비나 의지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상담자나 치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택의 여지가 청소년에게는 없었다. 비자발적 시작과 선택가능성이 배제된 환경은 상담·치료에 대한 청소년의 부정적인 인식과 비협조를 낳는 주요 원인이 된다. 선택이 불가능하니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담·치료가 되풀이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상담받고, 학교 상담 받는 중간에도 미술치료 받으러 가라 해서 받으러 가고, 전학 가서도 상담 받으라고 해서 상담받고, 쉼터에 가서도 좀 먼 곳으로 상담받으러 가라 해서 상담받고. (...) **그냥 통보해요 통보.** 수요일 몇 교시에 거기 가라 이렇게. 왜요? 상담선생님이랑 얘기해보라고.”

- 이의진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한없이 해봤어요. 집단 미술상담치료도 했었고. 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했죠.** (...) 심리검사 그거 하라 그랬을 때 진짜 하기 싫었어요. 되게 긴 검사도 있었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화가 나가지고. 제가 18살 때 되게 긴 검사를 받으러 삼성역까지 갔었어요. 쉼터에 들어오면 그냥 다 해야 하는, 보건소도 가야하고 그런 절차. 중간에 내가 이런 거 왜 해야 하나고 싫다고 화내고. 결국 끝나긴 했는데...”

- 전지예

“여기 6호처분 받은 애들은 기본 심리상담 다 받아야 돼요. (상담 받아보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 들었어요?) **왜 해야 하나...**”

- 양정우

“초등학교 6학년때 담임선생님이 그냥 남으라고 하더니, 남았는데 사랑방 선생님? 상담하는 쌤이 와서 데리고 가요. 버스 타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지? 갔는데 이상한 의사복 입은 사람이 갑자기 설문지 하래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울증이라요 저보고. 언제가 제일 우울하네요. 그걸 왜 물어봐요 하면서 화냈거든요. 아휴 화가 많네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 뭔데 날 판단하냐고 그러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갔는데 **그땐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 막 볼펜 재밌게 생긴 게 있길래 갖고 놀았는데 정서불안이라 니! 하얀 캡슐 안에 하얀색깔이랑 초록색깔 있는 약을 줘요. 그게 우울증 약이라고, 먹으래요. 아침점심저녁으로. 졸릴 수 있대요. 그걸 내가 왜 먹어야 해요? 대놓고 그랬어요. (...) 제가 엄청 활발한데 먹기가 싫어요. 사람이 축축 처진다고 해야 하나? 졸립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멍 때리게 되고. 그래서 그 약 일부러 안 먹었어요. 반항했어요. 일주일쯤 잘 먹어주다가 안 먹었어요. 사랑방 선생님이 요새 약 안 먹냐고 물어보면 그걸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따지고.

(쉼터에 있을 때도) **내일 선생님이랑 갈 데 있으니까 일찍 들어와 그래요. 네, 하고 따라갔어요. 담당 선생님이니까 따라갔는데 미술치료, 놀이치료, 뭐 모래치료 하는 텐데 너무 아닌 거예요.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데려갔어요?) 네. 그때 쉼터에서 강사를 모셔서 미술치료 했는데 그 선생님 인 거예요. 뭐지? 왜 이 쌤이 여기 있지? 우리 엄마 닮아서 되게 싫은데¹⁰⁾ 나보고 계속 상담을 받으래요. 안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 쌤 우리 엄마 닮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러 안 갔어요. 안 가려고 하고.”**

- 박우영

2) “너는 달라. 나쁘게 달라” - 낙인 그리고 진단의 남용

청소년들은 “상담 좀 받아봐”라는 제안을 개인문제든 가정문제든 ‘문제 있는 애’나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경험으로 받아들였다. 같은 함정에 계속 빠지거나 도무지 문제를 풀어갈 길을 찾기 힘들다거나 할 때 마음의 밑바닥을 함께 탐험해줄 전문가의 안내나 조언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왜 상담·치료 제안을 새로운 방도를 안내받은 경험으로 여기지 못했을까.

안 그래도 심리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다 제안 또는 지시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상담이 필요한 골치 아픈 애’로 분류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받기 때문이다. 학교 교사가 상담·치료를 제안한 첫 번째 사람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 제안은 “너랑 대화하기 귀찮다”거나 “너는 이상하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10) 박우영은 어려서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와 동생들과 함께 살았다. 이웃이 아버지의 학대를 신고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 맡겨졌다. 쉼터에 있다가 정신병원으로 옮겨져 6개월간 입원하기도 했다. 우영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그리움과 원망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기에 어머니를 닮은 치료사가 편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좀 부끄러웠어요. 상담 받으러 가는 걸 까먹고 안 가면 학교 찾아와서 부르고.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위클래스? 거기 있는 쌤이 찾아와서 의진이 좀 불러주세요, 고개 빼꼼 내밀어서. (아, 그 장면이 기억이 나나 보다?) 이를 이렇게 악물게 되는... **내가 괜히 집에 문제 있는 애 같고,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했던 거 같아요. (...)

학교 안 나온다고 상담 받으라고 했을 때 **나를 되게 나쁜 아이로 만드는 듯한? 다른 애들이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느낌**. 그래서 차라리 학교 끝나고 받는 상담이 편했어. (...) 나는 (쌤) 쌤이랑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 같은데 굳이 상담소 연결해주니까 **나랑 이야기하는 게 귀찮은가 보다** 싶고.“

- 이의진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상담을 받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중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 만약에 저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그 요인이 뭔지, 어떻게 하면 학교에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어요, 솔직히. 담임선생님이 그런 관심이 자기가 귀찮으니까 ‘상담실 가서 상담 받아봐’. **자기는 바빠서 얘기하기 싫다던가?** 이런 제스츰어가 좀 있었어요.”

- 정유현

특정 상황에서 당연히 보일 수 있는 정서적 반응이나 어떤 맥락에서 자기만의 생존방식으로 선택한 정서적 해법이 ‘장애’나 ‘정신병’으로 해석된 경험도 청소년들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구조나 조건에는 눈을 감고, 청소년의 태도만 문제 삼는 경향은 심리정서 영역에서도 강고하다. 문제적 행동이라 여겨지는 어떤 행동은 외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지만, 치료현장에서는 ‘증상’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교사의 말이나 시계 초침 소리만이 허용되는 억압적 교실 구조 하에서는 약간 산만할 뿐인 청소년의 어떤 행동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증상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동이 ‘반항장애’나 ‘품행장애’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의진은 심리정서적 불안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쉼터 실무자의 손에 이끌려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다. 박우영은 헤어진 엄마와 나눈 마지막 약속을 기억하며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해피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이 될 거야’라는 다짐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기도 했다. 그런 그녀에게 가면우울증이라는 진단명이 주어졌다.

“아버지가 폭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긴급으로 아이가 그룹홈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아이들을 때려요. 그래서 제가 (상담자에게) 질문을 했죠. 당신이 그 상황이라면 다른 아이 안 때리겠냐?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의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 또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상담으로 연계되는 순간...”

- A(지역아동센터 실무자)

“**최근에야 우리 친구들¹¹⁾에 대해 외상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모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분류할 때 경계선 성격장애다, 분리불안 때문에 감정기복이 심한 아이다, **반항성 성격장애다, 이런 식으로 장애로 진단하면서 성격장애에 맞춰서 갔던 거예요.** 이런 것도 만져주어야 하겠지만 그게 왜 나왔는지 생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 아이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이런 건 결과니까 외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 1388 들어오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갓 시작하시는 연구원들이 많잖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 안에서도 슈퍼비전 별로 없거든요. 책임지고 봐주는 사람이 없고.”

- 남일량(치유작업자)

“그때 학교도 그만두고 집도 쫓겨나고 가진 것도 없어서 엄청 힘들었는데 **풀 사람이 없었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는 거예요. 샘한테도 화내고 그랬는데, **다혈질이라고 병원가라고.** 그래서 병원 갔어요. 병원에서 ADHD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그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내가 정신병자가 된 것만 같고, 내가 화내는 게 비정상인 것만 같고 그랬었죠. 그 다음엔 너무 웃겨갖고 친구한테 말했어요. 나 검사 받았는데 ADHD 나왔다 이렇게. **(장애가 있다는 말이 어떻게 들려요?)** 너는 일반 애들과 좀 달라, 나쁘게 달라 이런 느낌. ‘분노조절장애 같애’ 그러면 일반 애들과 다른, 화를 많이 내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애 같게 느껴지는데, ‘너는 이런 행동을 보면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애’ 그러면 일반 애들과 다를 바 없지만 이 행동은 싫어하는 거 같애 이렇게 들려서 더 좋죠. 그렇게 말해준다면 땡큐죠.”

- 이의진

“시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애가 **좀만 불안해보이면 ‘너는 정신병원 가야해, 넌 좀 상담을 받아야해’** 이렇게 강요적으로 나오니까 더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억지로 억압으로 병원을 가고

11) 성매매 경험을 지닌 여성청소년들을 뜻한다.

‘너는 안 돼, 그건 이상한 짓이야’ 쿡쿡콧 집어버리면 솔직히 그 사람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요. 인간적으로 반항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만약에 자해를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화가 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줘서 표출을 잘 못하는 거야, 하면 맞는 말이에요. (...)

(병원에서 진단 뭐라고 받았어요?) 가면우울증이랑 총동성장애. (가면우울증이 뭔가요?) 겉으로 막 웃어요. 속으론 막 울고 있고 화내고 있는, 그런 걸 표현을 못하는. (...) 난 원래 활발한 사람인데 내가 왜 우울증이 있다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활발한 것도 죄인가? 사람들 앞에서 안 울려고 한 거는... 어렸을 때 엄마랑 빨리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약속을 했던 게 사람들 앞에서 울면, 니가 힘들어하거나 울면 니 주변 다섯 사람이 힘들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해피 바이러스를 가진 인생을 살 거야 정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못 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면 우울증으로 나 울 줄은 몰랐어요.

(...) 손 떨면 나보고 정서불안이네 막 그러고. 입술 깨물면 자궁 안 좋아진다고 그러고. 자기가 무슨 타로 정보는 사람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막... 한번은 미술치료를 하는데 달고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 쌤, 달고나 해먹어도 되요?’ 했더니 쌤이 너 총동성장애 아니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다 뒤집어엎고 싶었어요. 그런 식으로 막 사람 은근 슬슬 굶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 ‘이러이러 해서 너의 마음은 이래’ 풀이를 해주는 것과 ‘야 너 가면우울증이야’ 이걸 받아들일 때 느낌이 다르죠. 너 정서불안이야 이렇게만 말하다보니까 오해를 살 수밖에 없고, 사람들 인식이 더 안 좋아지고.“

- 박우영

“학교 선생님이 학교상담선생님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재 이상해, 재 상담 좀 해줘’라고. 저희 센터 아이 같은 경우는 말대꾸를 했어요. 말대꾸를 했는데 이 선생님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지. 앞뒤 전체 조건, 상황을 모르시는 거야 선생님은. 그 말 한마디만 화가 나는 거야. **저 새끼 욕했어, 너는 상담 받아.** 애는 자기가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얘기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 선생님이 그래요. 아이들하고 말을 섞다보면 자기도 실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한다고. **낙인화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죠, 계속 그 애는.** 이렇게 상담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상담선생님도 감당 안되는 애는 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 B(지역아동센터 실무자)

중2병, 초4병, 결정장애, 분노조절장애, 반항장애, 인터넷중독과 같은 비과학적 진단명에서부터 의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같은 전문용어까지 대중적으로 남용되는 사회에서 청소년은 더욱 쉬운 진단의 폭력에 내몰리곤 한다. 진단명이 붙여지는 순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증상을 지닌 환자가 되는 것이다.¹²⁾ 청소년의 어떤 행동이 사회가 정한 잣대나 규범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곧장 ‘품행장애’나 ‘성격장애’로 진단내리는 것은 매우 폭력적이면서도 정치적인 행위다.¹³⁾ 트라우마 연구자이자 치유작업자인 최현정(사람마음 대표)은 자기가 겪는 고통의 이름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어떤 정신과적 장애가 있다고 진단을 받고 나면 오히려 ‘나는 고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낙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과학적 진단이 남용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심리치료 장면에 오시면 ‘저 분노조절장애예요’, ‘저 PTSD예요’, ‘경계선성격장애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깨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회기가 소모돼요. 제발 그것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전 경계선 성격장애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문제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고칠 수 없는 사람.** 진단이 도움이 되는 분은 이런 분이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똑바로 못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한테는 ‘당신은 그런 경험으로 이런 후유증을 겪으시는 거고 그 이름은 뭐다. 장애

12) 거짓말하는 능력을 키워 성공한 인간을 만드는 학교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전성희의 『거짓말학교』에서는 어떤 기질이나 흔한 현상을 치명적 질병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제약회사의 이야기를 다룬다. 예를 들어 부끄럼 잘 타는 기질에 ‘사회 공포증’이라는 전문용어를 붙이면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학교에서 ‘문제아’ 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학생들과 함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에서 ADHD라는 병명을 개발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행위는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에게서 찾는 비겁한 행위라고 말한다. 한시도 가만있지 않는 아이는 매우 활동적인 것이지, ‘과잉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ADHD 진단과 약물요법이 과학적 뒷받침이 충분치 않음이 밝혀지면서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학교가 학부모에게 정신과 약물 복용을 권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들이 통과시키는 주(州)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13) “품행장애 진단이 때로는 파괴적 행동을 문제로 보지 않는 환경(예: 위협적이고, 범죄율이 높은 환경)에 놓여 있는 개인에게 잘못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발생하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Rita Wicks-Nelson & Allen C. Israel, 『아동청소년 이상 심리학』(제8판), 정명숙 외 번역, 시그마프레스, 2015, 239쪽. 미국정신의학회가 펴내는 ‘DSM’(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은 한때 동성애를 정신장애로 분류했다가 1973년 DSM-II에서 삭제한 바 있다.

라고 해서 정신질환이라 생각하실 건 없고 ‘사건’으로 인한 거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
씀드리면 치료적인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에게진 진단명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께 말하지 않아
요. 그리고 분노조절 장애라는 진단명은 없어요. (...) 정서조절에 문제가 있을 순 있죠. 근데 정서
조절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무섭게 생긴 남자 어른이 나에게 와서 뭐라 하면 괜히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고 싶어’ 이게 더 정확한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어른에게 버릇없
이 굴면 분노조절장애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은 웬만하면 진단하지 않아요. 성격
장애도 진단할 수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안돼 있는데...** 많은 청소년에게 경계선이다, 반
사회성이다 이렇게 진단하면...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 정신과 진단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여러 행동 체형들을 목록을 만들어서 쉽게 이름 붙인
거지, **이 문제가 왜 발생하고 맥락은 뭔지 등은 진단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의사소통에 편리
하고 진단이 명확하게 있으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편리하고 연구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진단명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을 낙인찍는 데 쓴다면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 최현정, 몽실 초청 워크숍(2016.06.02) 기록 중에서

3) “저를 어떻게 알아요?” - 옛보기와 관계를 넘어서는 캐묻기

상담·치료 과정에서는 매뉴얼마냥 만남의 초기부터 검사지가 등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청
소년들이 원하지도 않는 관찰과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그것도 “생전 처음 본 사
람”이 “얘기도 나눠보지 않고” 오롯이 하나의 검사지나 짧은 상담으로 평가한다면 저항감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 ‘그런 검사로 저를 어떻게 알아요?’라는 양정우의 항변에는 모욕감마저 배어있다. 그레
서 청소년들은 자기보고형 검사지를 대충 작성하거나 ‘구라를 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집-나무-
사람 검사’(HTP 검사)나 ‘물고기 가족화 검사’ 같은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하고는 다시는 그림을 그리
려 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오자와 마키코는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라는 책에서 이를 두고 ‘one
side mirror로 상대방을 엿보는 형태의 아는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마키코는 “서로를 안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당신을 알았다는 말에는 불쾌할 수밖에 없다. 모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법이다. 상대가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똑같다.”라고 말한다.

“생전 처음 본 새끼가 애는 살짝 우울증이구요 판단하는 건 좀 확실히 쫓겨요. **이 새끼 나 알지도 못하는데 진단? 아무것도 모르는데 초면에 만나서 뭐 얘기도 해보지도 않고 그림 그려봐 해놓고 이 새끼 정신병 있는지 판단하는 거, 솔직히 아닌 거 같아요.** (...) 학교에서 상담받았는데 애는 살짝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인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기가 작아서 뭐 센 척을 해야 한다 느니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제 성격이 그랬고, 다른 애들 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였는데, 그 새끼는 ‘너만 다른 거 같애’.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답임이랑 하는 얘기를) 엿들었어요. (...) 솔직히 제 생각에는 진짜 종이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구라 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설문지 그 판 거 도움이 안 돼요. 학교폭력 설문지 누가 괴롭혔는지 묻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정신병, 자살충동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 이민수

“검사 같은 거 할 때 찍을 때도 있어요. (검사가 도움될 때가 있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검사를 해서 저를 어떻게 알아요?**”

- 양정우

“학교 상담선생님은 만나고 싶지 않고 (청소년동반자)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의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애가 이제 교회에서 만났어요. 청소년동반자¹⁴⁾ 선생님이 교회를 다녔었나 봐요. 자기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한테 물고기를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애가 ‘아, 나 저번에 그랬다. 안 그리고 싶다.’ 했는데 오늘 해갖고 가야 될 과제? **‘이거 내가 오늘 검사해갖고 가야 되니까 미안한데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돼?’**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아이가 와서 저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 안 만나고 싶다. **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지는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해 주면서 나는 개한테 미주알고주알 다 내 얘기 해야 되냐고, 짜증난다고.** 그래서 그림 가지마, 니가 가기 싫으면.”

- C(지역아동센터 실무자)

14) ‘위기청소년’ 정서 지원과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자립 지원 정책 가운데 하나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에 따라 분기별로 대상 청소년을 선정하고, 상담실로 청소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가족, 교사, 친구 포함)이 요청하는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직면하려면, 그것도 타인 앞에서 인정하려면 누구에게나 상당한 시간과 용기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심리치유의 초기에는 성실하고 진실한 답을 하기 어렵다. 치유작업자들이 사전(事前)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또 사전검사보다 사후(事後)검사에서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더 낮게 나타나거나 우울감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해 역설적으로 심리치유작업이 도움이 된 결과라고 보는 치유작업자도 있다. 청소년 스스로 자기 상태를 직면하고 치유작업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솔직하게 답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소년 심리치료 관련 논문들에는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하면서 사후검사에서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증거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검사는 잘 안 해요. 아이들이 상담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특히 사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 이진(치유작업자)

“이 아이는 실제로 굉장히 우울해요. 그런데 상담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자기가 우울한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검사지에 좋아요 써요, 관찮음 이렇게. 자기가 대인관계 문제 심각한데 자기애성 있는 아이는 사전 검사지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써놨어요. 근데 과정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차리는 거예요. 검사지에 이제 나빠요 나빠요 쓰는 거죠. 역으로 나온 거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애는 엄청 좋아진 거예요.”

- 이두현(치유작업자)

어떤 진단검사도 필요 없다거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치유작업자들은 진단검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진단검사가 치료의 기저선을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말한다. 이진은 특히 ‘지적 경계선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치유작업자가 청소년에게 과다 요구나 과소 요구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성장시킬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검사가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도 경계선에 있는 청소년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도움을 받기 위해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단검사 결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그 결과만을 신뢰하는 일은 위험하다.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전수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진 학교에서의 객관

식 진단검사가 대표적이다.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객관식 검사지나 그림을 보고 판단한다면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 검사의 필요성이나 쓰임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 행위 역시 무례하기 짝이 없다. 청소년에게는 형식적인 동의절차조차 생략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치유작업자 최현정은 ‘진단검사는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신뢰로운 도구이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어디에 쓸 목적으로 하는 검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검사 윤리”이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대한 정보를 내 것인 양 훑쳐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무례하게 내밀어진 진단검사지뿐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은 불쑥 ‘관계를 넘어서는 질문들’을 받곤 한다. 자기가 겪는 고통을 해석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치유현장을 찾아온 이들이라면, 치유작업자와 맺게 될 ‘관계’에 대한 기대보다 치유작업자가 가진 전문성이나 태도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반면 비자발적으로 심리치유과정에 들어간 청소년에게는 치유작업자와의 ‘관계’가 치유의 질과 성패를 판가름한다.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대화도 깊어지고, 그만큼 해답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럼에도 ‘나는 이 청소년에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관계인가’라는 점검 질문은 상담자나 치료사의 관심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곤 한다. Edgette도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에서 청소년에게 “말을 걸지 않고 치료하려고만”¹⁵⁾ 드는 상담자의 태도를 문제라고 꼬집는다. ‘말을 건다는 것’과 치료를 위한 캐묻기는 어떻게 다를까. 말을 건다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고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다. “한 번에 풀 순 없죠.”라는 이민수의 말은 흔히 강조되는 라포(rapport)라는 말이 단지 상담자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의 ‘유대관계’도 포함하는 개념임을 상기시킨다. Edgette는 또한 지나치게 보살피려 들거나 관계에 걸맞지 않은 관심을 보이는 상담자는 “청소년에게 ‘뭔가 석연치 않을 때는 도망치라’는 본능적 생존기제를 작동시킨다”¹⁶⁾고 말한다. 너무 파고들면 그만하려고 한다는 양정우의 선택도 관계를 넘어서는 질문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라는 직감의 결과로 보인다.

15) Janet Sasson Edgette, 앞의 책, 63쪽

16) Janet Sasson Edgette, 앞의 책, 12쪽.

“막 꼬치꼬치 캐묻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모래 상담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상자에 딱 모래가 있잖아요. 생각나는 게 나는 거기서 뛰어노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껏 표현해봐라 하길래, 인공으로 나무가 되어 있길래 그거 꼽아놓고 축구 골대처럼 해놓고 축구하는 장면을 처음에 표현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축구하는 장면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뛰어놀고 싶어요’ 했더니 ‘너에게는 남자의 피가 흐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 박우영

“그냥 친해지면 얘기해주겠죠. 뭐 했냐 맨날 물어보고 그러는데, 쪽팔리니까 얘기 안 해야지 이러면서 우연히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좋은 반응 보여준다거나 그런 얘길 해주면 이런 고민도 얘기해봐야지 하면서 계속 풀어지는 거죠. **한 번에 풀 순 없죠.**”

- 이민수

“자기가 처음에 고르래요. 뭐 상담 받고 싶은지. 가끔씩 카드 갖고 와서 자기 기분 어떤지 물어볼 때도 있고, 직업할 때도 있고 그냥 말할 때도 있고. (...) **내가 여기¹⁷⁾ 왜 왔나**지 막 그런 거 묻는 건, 솔직히 프라이버시잖아요. 아무리 궁금해도 그건 아니죠. 따로 가서 물어보든지... **그냥 너무 파고들면 그만하려고...**”

- 양정우

치유작업자 남일량은 2016년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가 운영하는 경기위기교육센터를 통해 성매매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과 만나 개별 심리상담작업을 진행했다. 남일량은 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처음에는 거부하던 청소년들도 대부분 협조하더라고 말했다. 또 청소년들이 보이는 방어를 억지로 해체하려하기보다는 과정 속에서 관계와 신뢰를 쌓아가는 길을 택했다. 상담자의 안내와 요청, 방어에 대한 인정은 내담자인 청소년에게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자율성을 주었을 것이고 그것이 외려 신뢰를 얻게 되는 거름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여성인권동감이 운영하는 ‘소나기 멘토링학교’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나로살기센터>의 이진과 이두현도 청소년에게 언제, 어떻게 검사지를 안내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17) 양정우는 소년법상 6호처분(보호시설 감호위탁)을 받고 시설에서 생활중이다.

“객관적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검사도 같이 가요. 투사적 검사의 특징이 있잖아요? 방어를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림도구를 많이 만져본 아이들은 이거 해봤다고, 그때는 안 할려고 해도 달라면 해요.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야. 지금의 너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해줄 수 있겠니?’ 그래요. 이거 없이는 안된다고 얘기해주면 애들이 하더라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 선생님은 충분히 안내를 하시고 협조를 요청하시네요?) 그러려고 하죠. (...) 개인적으로는 (방어를) 해체하려고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뒹요. 방어가 심한 아이들한테 넌 방어가 심해가 아니라 ‘내가 혹시 너를 불편하게 하는 게 있니? 선생님 못 믿겠지? 어른들 잘못 믿겠지? 너가 날 몇 번 봤다고 믿겠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 남일량(치유작업자)

“검사만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소나기학교라고 전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스텝들끼리, 리더들끼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랑 검사결과를 같이 봤을 때 그 검사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아이들이 충분히 관계가 맺어진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지금 할 거고 마지막에 할 거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거다 안내를 하면... **그게 말보다도 관계가 맺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줄어든 거 같아요.** (...) 상담하러 가면 검사지 들이밀고 시작을 하는데, 저하는 모이면 시작이 그게 아니거든요. 앉아가지고 서로 눈 보는 걸로 시작해요 한명씩. 그러면서 얘기듣기도 하고. **애네는 상담한다는 느낌을 하나도 안 받아요.**”

- 이두현(치유작업자)

4) “어색하고 답답하고 위축되고” - 어색한 이야기 구조

청소년들은 상담·치료실의 전형적인 구조나 상담자들이 주로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한다. 이의진은 상담·치료과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었는데, 실제 상담·치료과정을 겪고 나서는 되레 좌절감이 깊어졌다.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었고, 상담·치료실의 구조 역시 어색하고 위축시키는 분위기였다. ‘내 비밀을 보여준 기분만 든다’, ‘나 혼자만 주절주절 얘기했다’, ‘대충대충 하는 것 같다’와 이의진의 말에는 반복된 미끄러짐의 기억과 일방적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모욕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우영 역시 자기를 억압했던 가족 안에서 느꼈던 감정이, 전지에 역시 학교의 경직된 구조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상담구조 안에서 고스란히 반복되었다고 기억한다.

“상담생들이 나한테 관한 기대를 줘요. ‘너의 힘듦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거기서 너를 꺼내줄게’ 이런 느낌을 계속 줘가지고. 처음에만 잘해주나 봐요. (...)제가 원래 예의상 얘기는 하거든요. 정말 얘기하기 싫는데 그게 (그 사람) 직업이기도 하고 내가 얘기 안하면 계속 귀찮게 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상담받으라고 하면 얘기해주는 편이거든요. 처음엔 주변에서 말할 사람이 없으니 상담 받으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찰했네 하며 받았는데 **위로되는 것도 없고 그냥 내 비밀을 보여준 기분만 들고**. 미술치료 갔을 때도 전문적인 상담소니까 거기 가서 얘기 많이 하고 도움 받아야겠다 했는데 가자마자 미술 도구 꺼내서 그리거나 만들라고. 진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술치료 할 때는 정말 그냥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요. 내가 물어봤었나? 너무 답답해서 결과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말 안해줘요. 모래치료도 그냥 가면은 모래로 뭘 만드래요.

내가 맨날 질문했거든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것로 뭘해야 하나고 물어보면, 그냥 해보래요. 내 상상 속에 나오는 물가 그리고 집 그리고 그러면 **설명을 해보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열심히 노트에 뭘 적어요. 내가 만든 걸 사진 찍어요. 종이 올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요.**

(...) 대부분 나만 혼자 주절주절 얘기하고 쌤은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 같아요. 상담 받으면 맨날 나 혼자 열심히 얘기해요. 종이 올리면 나 혼자 후회가 되죠. 나 또 주책없이 얘기했어, 이렇게. 다음 상담에는 얘기 안해야지 이러는데 또 만나면 주절주절 얘기하고 그러고 또 후회하고. (...) 50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되게 어색했던 거 같아요. 거기는 너무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사무실 같은 데였는데 시간 되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작은 방 같은 데 들어가서 얘기하고. 애 끝나면 다음 애, 애 끝나면 다음 애. 상담 쌤들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대충대충 하는 거 같아요.“

- 이의진

“상담을 받으러 갈 때마다 시간들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가는데 그게 11시에 꼭 와야 해. 뭔가 억압받는 기분이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마음 터놓고 친구처럼 있으면 ‘야 뭐 하나’ 이런 식이잖아요. ‘올래? 만날까? 만나자.’ 이래서 뛰어놀면서 지금 하는 또래상담 처럼 하면 누가 안 받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담실에 들어가면 굳어요. 그냥 그 공간이 너무 답답해요. 마치 본집에 들어간 기분? 본집이 너무 가정폭력으로 힘들었고 억압이 심해서 나오게 됐지만 그런 갑갑함?

이런 얘기를 또 하면 과대망상이네 뭐네 하는데... 그냥 그 공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반 상담소는 뭔가 진지해야할 것만 같고, 뭔가 캐묻고 대답하면 이상한 봉변이 올 거 같고. 머리에 오만가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말실수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 박우영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시간 딱딱 정해져있고, 수업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가둬놓는단 느낌이었고. 틀에 박힌... 그래서 컴퓨터에서 지금도 프로그램 시간 딱딱 정해져서 나오면 싫어요. 괜히 마음의문 더 닫히고.”

- 전지예

상담·치료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것만이 청소년들이 느낀 답답함의 이유는 아닐 것이다. “맨날 나 혼자 주절주절 말했”던 시간이라는 이의진의 표현에는 귀한 통찰이 담겨있다. 이들이 느낀 답답함의 밑바닥에는 ‘대화’가 아닌 ‘독백과 관찰’로 이루어진 상담·치료실의 전형적 구조가 놓여 있다. 누군가는 들어가자마자 이를 직감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고, 또 누군가는 그럼에도 다시 기대감을 갖고 말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좌절이었다. Edgette의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에서도 전형적인 상담·치료실의 화법과 구조를 ‘비정상적인 대화나 바보 같은 질문’으로 여긴 청소년들의 경험담이 수록되어 있다.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묻지. ‘그래. 너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니?’ ‘그래서 너는 어땠니?’ 이런 바보 같은 질문들 말이야. 너와 엄마가 휴가를 재미있게 보내기는커녕 휴가 내내 서로 싸웠다면 내가 뭘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휴 정상적인 대화 대신에 이런 질문이나 받는 것은 정말 못 견디겠어.”¹⁸⁾

5) “나중에 뒤통수를 치셨죠.” - 배반 혹은 외면

청소년들은 원치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도움의 자리에 소환되거나 필요한 도움을 외면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정유현은 피하고 싶은 ‘화해’의 자리에 참여해야만 했던 기억과 상담자에게만 꺼낸 이야기가 타인에게 공개된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학대를 이웃이 신고해 보호쉼터로 가게 된

18) 14세 김의 이야기. Janet Sasson Edgette, 앞의 책, 45쪽

박우영은 당시 자기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눌 친구와의 만남이었다. 쉼터와 병원에서도 계속된 박우영의 호소는 한 번도 수용되지 않았다. 자율성 혹은 자기주도적 해결의 기회를 빼앗긴 상담의 경험은 치유를 방해하고 상담·치료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위클래스 선생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소문¹⁹⁾ 퍼뜨렸던 친구도 어떻게 찾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퍼뜨렸냐 화해의 시간이 있었는데... 솔직히 전 그 자리가 싫었어요.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맙고 의도는 고맙지만 그 친구랑 만나기 싫었고 학교에 가기 싫었고 그냥 마 주치기 싫었어요.** (그 마음을 상담선생님에게 얘기했어요? 난 지금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뇨. 얘기 못했어요. (...)그 때는 진짜 소심했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애들이 진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믿어버리는구나’라는 막연한 소외감이 너무 컸던 거 같아요 그 때는. ‘그래요, 화해의 자리... 예, 알겠어요.’ 그냥 수긍했던 거 같아요. (...) **상담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그 얘기에 대한 조언이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뒤 통수를 치셨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2학년 오빠랑 사건다는 걸 제가 상담선생님한테 얘기를 다 했거든요. 하~ 근데 제가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연애를 한다는 걸 징계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둘이 난처한 상황이 되었고. **처음엔 얘기할 때는 ‘다 비밀이야 걱정하지 마.’ 따지고 보면 비밀은 아닌 것 같아요.** 중학교 선생님도 그랬는데, 소문을 퍼뜨린 주 친구를 어떻게 알아낸 거니까.”

- 정유현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 만나서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 마음적으로 안정이 될 텐데 **완전히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살려니 더 힘든 거예요.** (...) 상담 받을 때 얘기를 했어요. 이 공간만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서 밤새 놀아보고 싶다고, 뛰어보고 싶다고. 나는 스트레스가 움직여야 풀린다, 나는 뛰어놀고 이래야, 친구들 만나고 이래야 스트레스 풀린다. 이 얘기를 정신병원 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프로그램 만들어줄게. 택견을 만들어줄게.’ 나는 그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던 건데, 몸을 움직이고 싶은 게 아니고 벗어나고 싶은 건데 **그분들은 계속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 박우영

19) 정유현은 중학교 때 ‘원조교제’를 한다는 소문에 휘말린 경험이 있다.

정유현과 박우영의 기억 속에 등장하는 상담자들이 이들의 의사를 외면했던 행동은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화해 자리를 갖는 것이 당사자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가해 부모와의 분리 보호가 우선이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외부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당사자'로서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싶은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가해자와 대면하고 싶은지, 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이 삭제된 '보호'와 치료가 과연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6) “해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 공감에만 머무르기

이의진은 법적 해결의 기회를 갖고 싶었으나 여러 상담자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당시 그녀에게 법적 해결을 밟는 과정은 심리치유의 과정과 무관하지 않았음에도 외면당한 것이다. “나를 진심으로 대한 사람은 없었다”는 이의진의 기억은 함께 아파하고 가능한 선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기보다 ‘그랬니? 그래서 넌 느낌이 어땠니?’라는 형식적인 공감에만 머문 채 당사자가 원하는 도움은 외면한 상담자의 반응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식의 반응이 진정한 공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상담·치료를 단지 개인의 내면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정적(靜的)인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 해방과 사회적 억압에 맞선 실천으로 이어지는 동적(動的)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많은 치유작업자들이 경청, 감정적 수용, 공감 등에만 머무르면서 외려 치유가 가진 역동적인 힘을 스스로 제한하는 오류에 빠지곤 한다.

“그땐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상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말하기 싫었지만 도움을 받으려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말했는데 신고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거예요. 그걸 상담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부탁드렸는데 그냥... ‘아 그랬냐,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고 나서서 아무 얘기도 없고. (...) 결국 그 마음을 추스르고 그런 건 내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대부분 얘기하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혼자서 마음 앓기보다는 말하고 위로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내가 이런 이런 힘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랬냐 그러고. 그럴 때 기분이 어떠냐 그러면 이러 이러했어요 그러면 그랬냐 그러고. 질문하면 답하고 시간이 되면 그냥 막 오늘 수고했고 다음에 언제 오는지 알지?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가요.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상담하면서 오늘 어땠니?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

(...)오늘은 얘기 안해야지 이렇게 막 마음먹었는데 그래도 상담받기 마지막 전까지는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은 진심을 갖고 대하는 사람이 있겠지 했는데 결국 없었어. ‘모르는 애가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었어, 나이스!’ 이렇게,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만약 그 당시에 법적 문제를 해결했다면 의진은 지금 훨씬 더 좋았을까요?) 그럴것죠. 지금도... 그렇게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 이의진

오자와 마키코는 오직 내담자의 감정에만 집중하는 상담자의 반응을 ‘문제설정의 바꿔치기’라고 지적한다. 여성주의 상담을 연구하는 로라 브라운 역시 ‘정치적 현실을 심리치료적 구조물로 바꾸려는 경향’에 경종을 울린다. 상담·치료가 개인의 ‘내면’에만 집중할 때 그 내면과 연관된 사회구조나 정치적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신을 치료하여 상황에 적응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어버린다.

“학교는 정말 숨쉬기가 힘든 곳이에요.”라고 아이가 호소해도, 상담자는 “네 학교는 어떤 곳이야?”라고 묻지 않는다. **상담자는 아이가 당면한 학교가 어떠한 상황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담자의 관심은 아이의 감정에 있다. “학교에 있으면 숨쉬기 어려운 모양이군요.”** 라는 식으로,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의 느낌을 명확한 말로 되돌려 준다. 나카지마는 이것을 ‘상담 기능이 가진 문제설정의 바꿔치기’라고 말한다. (...)즉 그것은 현상을 고정시킨 채 내담자를 거기에 적응시켜 가는 현상긍정을 위한 기법이기 때문이다.”

- 오자와 마키코,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 125-126쪽

“상담에 내재하는 심각한 위험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정치적 현실을 심리치료적 구조물로 바꾸려는 경향이다. (...)상담은 **정치적인 것을 취해서 그것을 고도로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기 쉽다.**”

- 로라 브라운, 『여성주의 상담의 전복적 대화: 젠더와 권력의 전복』, 57쪽

7) “결론은 어쨌든!” - 정해진 답이 있는 닫힌 상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수 경험하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식의 대화는 상담과정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는 현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과거의 외상 경험이나 가족환경에서만 찾는 경향이다. 이의진은 여러 차례의 상담 경험에서 ‘상담자가 미리 짐작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는 통찰을 이끌어냈다. 현재 자기가 겪는 어려움의 근원을 찾아 과거를 탐색해보는 일이 쓸모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상처받은 어린아이’에게서만 찾거나 ‘부모만 죄인으로 만드는’ 경향은 위험하다. 과거 읽기만으로는 현재 무엇이 자기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지 찾는 데 실패할 수 있다. Edgette 역시 상담자로서 자신은 과거사를 떠올리는 관음증 환자나 고고학자가 아니라면서 “현재 무엇이 청소년을 가로막고 있는지 -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가 아니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심리치료를 더 지금-여기에서의 생생한 작업이 되게 한다”²⁰⁾고 말한다.

“처음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느낌?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게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기 싫는데 상담소 샘을 만나면 내가 힘든 게 뭐지 물어봐요. 이것저것 힘들다고 말하면 그게 뭐지 집요하게 물어보고 ‘제가 사실은 그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샘들 만나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뭘 듣고 싶구나, 말해주지 뭐. 자기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듣고 싶어하는구나. 상담은 샘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끝나요.** (대부분 어릴 적 가족문제에서 찾나요?) 그렇죠. 다 집안 문제로 보는 거. 물론 집안문제 영향도 있겠지만.”

- 이의진

“상담이 너무나 진짜, 정말 어렸을 때 그 상처까지 꼬집어내면서... **그냥 지금 있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냥 현재에 집중하면서.”

- D(지역아동센터 실무자)

20) Janet Sasson Edgette, 앞의 책, 98~99쪽

"되게 부모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부모를 인제 부르죠. 애가 검사를 했는데 자살 위험 총동이 아주 높게 나왔다. 혹시 애한테 트라우마적인 어떤 어릴 적 경험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부터. 일단은 아이가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구조 속에서. 근데 자기가 엄청 잘못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이 우세요. 엄마들이 오셔서."

- E(지역아동센터 실무자)

문제의 원인을 찾는 과정뿐 아니라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도 '공감과 수용'이 아닌 '훈계와 교정'이 목표가 된 단한 상담을 경험한 경우도 많았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차 있었을 무렵 숨을 공간이 절박했던 전지에는 1388 청소년상담전화와의 만남을 '기계 같다'거나 '선생님인 척 한다'고 기억했다. 박우영은 이성애자가 아닌 존재들을 비정상인 양 대하는 치료사의 반응을 견디다 못해 폭발했는데 '화가 많다'는 진단을 다시 들어야 했다.

"모래를 적셔서 표정을 만들거나 여자나 남자를 만들래요. 만들었어요. 머리를 짧게 만들었는데 선생님은 남자인줄 알았나 봐요. 전 여자를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이거 남자야?' 해서 '여잔데요' 했더니, 왜 여자를 만드네요. '좋으니까요.' '뭐가?' '여자가요.' 그니까 **이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 내가 달나라 별나라에서 온 사람 마냥 신기하게 쳐다봐요. 디스를 거는 거죠. 짜증이 났죠. 모래 남았길래 조물딱조물딱 만두를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견 뭐냐고, 계란말이냐고. 만두데요? 왜 자꾸 내 거에 태클 거냐고 폭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에게는 너무 화가 많다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 박우영

“중학교 1학년 때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그때부터 집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나왔다 하루 들어갔다 또 나왔다가 이렇게. 그래서 학교를 안 나갈 때도 있었고. 담임선생님이 되게 좋은 분이셔서 학교에 있는 상담 선생님한테 가서 받으라고. **그때는 상담 선생님이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그때 저는 항상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좀 숨을 수 있었던 공간.** 자기도 옛날에 아빠 무서웠다고, 도망다니기까지 했다고. 근데 여긴 괜찮으니까 여기 있으라고. 그때 되게 좋았어요. (...) 근데 1388은 정말 기계 같았어요. 거기는 하루 제가 자고 어디 보내주거나 연계해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왜 저러나 싶었던 게 선생님인 척을... 선생님의 눈높이에서 계속 훈계도 하고 이해해주려고 했던 것도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해한다는 건가? **니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알겠지만, 일단 집에 가야해. 그리고 난 오늘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이렇게. 그럼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진 기분이에요.** 우리 얘기를 무시할 한대니까요 그냥. 결론은 어쨌든 난 집애를 가야 해요.”

- 전지예

성매매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과 치유작업을 진행하는 남일량과 노경자는 교정이나 교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닫힌 상담은 잘못된 접근이라 입을 모은다. 남일량은 특히 내담자의 위기 경험을 이해할 삶의 언어를 가지지 못한 상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판단과 교화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청소년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정 역시 ‘인정을 받아야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청소년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는 치유작업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치료사들이 내담자에 대한 경험이 없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치료사는 별로 없어요. 열려 있는 공간이 아니었으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친구들이 문제다, 성매매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교화시키려고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제가 청소년들이 성매매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성관계 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이랬거든요. 청소년 상담, 특히 위기청소년인데 **상담하거나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 잘해오셨고 집안도 그렇고. 크게 아픈 경험 없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애들을 만나는 거니까. **조금은 아픔에 대해 고민하고, 외상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고 그 것조차 모르겠으면 슈퍼비전이나 동료 슈퍼비전이라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못 믿고 튕겨나가고 나와서 땡강 쓰고 그런 것도 너야.’ 너가 이러니까 넌 부정적이어야 아 니라 **‘이럴 수 있어, 이럴 수밖에 없어, 그것도 너야. 그러면 좀 어때? 성에 대해 관심 있고 성을 일찍 알고 그러면 좀 어때?’** 그렇게 가야 아이들도 자기를 받아들이지요.”

- 남일량(치유작업자)

“아이가 처음에 자기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 같으니까 와르르 쏟아냈잖아요. 자기가 성매매 를 한 이야기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제 시간에 안 오거든요. 이 상담자는 그걸 못 견디 거예요. **‘성매매 했던 사실을 나는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와. 안 오면 신고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는 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친구도 같이 성매매 를 했던 친구거든요. 갔더니 ‘야, 너 저런 애하고 어울려 다니면 창녀밖에 안 돼. 재하고 어울리지 마.’ 되게 절친한 관계였거든요. 왜냐면 서로 지금 아픔을 공유하는 애들인데... 그렇게까지 말했 던 상담자가 있더라고요.”

- 노경자(치유작업자)

“인정을 받아야 교정이 되죠. 어떤 고칠 수 없는 습관들 있으시죠? ‘그 습관 나쁜 거야. 고쳐야 돼.’ 하면 안 고쳐지거든요. ‘그 습관 이렇게 해서 생긴 거 이해해. 나라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 면 마음을 놓거든요. 이 환경에서 자라난 십대들은 우리랑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와 같은 기준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 별 세계에서 살아온 이상한 외계생명체가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이해해도 될 만한 체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동등한 사람으로 보고 지원을 하는지, 아니 면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런 관점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죠.**”

- 최현정, 몽실 초청 워크숍(2016.06.02) 중에서

2. 의미있는 치유 순간은 어떻게 찾아왔나

우리가 만난 청소년 중에는 다행스럽게도 선물처럼 찾아온 좋은 치유작업자와의 만남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다. 전형적인 상담·치료는 거부하면서도 자기 자신과 감정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싶어했고 알아차리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했다. 심터에서의 심리치유 경험이 ‘인생의 반환점’이 되었다는 전지예는 상담·치료의 목표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돕는 데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상담자가 된다면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숨쉴 구멍이 되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얘기를 하고 나면 더 얘기를 나누고 싶어지는” 치유작업자와의 만남으로 “내 속은 이랬구나. 표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거구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박우영 역시 전형적인 상담실 구조에서 벗어나 또래 친구들에게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모든 상담이 최악이라고 말했던 이의진은 초등학교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상담 선생님은 그래도 달랐던 지점을 뒤늦게 기억해내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치유의 순간으로 떠올린 장면들에는 평범하면서도 잊히기 쉬운 심리정서적 지지의 요소들이 숨어있었다. 청소년과 치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이 강조하는 요소들도 청소년들이 나누어준 이야기와 상당히 겹쳐 있었다.

1) “같이 손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 마음을 여는 계기

심터에서 경험했던 개별상담을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지예는 처음에는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고 경계태세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다 자기 이야기를 들은 상담자가 같이 손 붙잡고 올려주는 걸 보고 마음을 열게 되었다. 손 붙잡고 우는 상담자의 행동은 전지예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손을 붙잡거나 껴안거나 등을 쓰다듬는 행위는 당신의 고통과 나의 삶이 연결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이 순간 나의 온기를 전해주고픈 상담자의 마음을 전했는지 모른다. 내가 안전한 만큼만 연민을 보내는 행위를 넘어, 공감과 사유의 과정을 거쳐 타인의 고통이 내 몸에 스며들었다 새어나온 결과가 눈물이었는지 모른다. 그 반응이 위선이 아닌 진짜라는 알아차림이 마음의 문을 열게 했는지 모른다.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보다도 친구나 자립현장 활동가/실무자들과의 대화에서 더 큰 위안을 얻곤 한다고 입을 모으는 까닭도 그들이 ‘손 붙잡고 같이 올려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개별상담 받으면서 진짜 좋아졌어요. 제 청소년기의 반환점이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했던 것을 꺼내놓을 수 있게 되고, 나를 찾아가는 시간? 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를 인정하게 되고. 처음에 집단상담 할 때는 되게 까칠했어요. 선생님도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시고. 우리는 ‘왜요?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라고. 근데 개별상담 하면서... 말투도 되게 강하세요. 저는 되게 싫었는데 그게... 좀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선생님이 상담하다가 **제가 털어놓지 못한 얘기를 털어냈을 때 같이 손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그 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상담 회기) 중간쯤이었던 거 같아요. 그전까지는 계속 경계했죠. 다 얘기를 안 했고. 심터에 사는 애들만 봐도 선생님한테 다 얘기를 다 안 해요. 항상 뭔가 숨겨놔요.”

- 전지예

치유작업의 모든 순간에 손을 붙잡거나 같이 울어주는 경험이 있어야만 청소년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아니다. 치유작업자인 남일량은 공감하는 척, 이해하는 척 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상대방의 고통을 어슴푸레 짐작할 수는 있어도 직접 겪지 않는 한 그 고통의 깊이를 충분히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하기에 선부른 공감은 오히려 역반응을 불러오기 쉽다. 치유작업자 이두현 역시 정직한 소통을 강조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라든지, ‘나도 아팠어’ 그런 거 하죠. 나는 너처럼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지만 너가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충분히 아플 것 같애, 이런 식으로. 솔직한 게 장땡이에요. 괜히 아는 척 했다가는 안되고. **애들이 생존을 위해서 바닥에 있어봤으니까 딱 알아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 남일량(치유작업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척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정확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난 선생님이니까 참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아이라도 정직하게 소통하면 아이들이 열어요.”

- 이두현(치유작업자)

2) “내가 원할 때, 내 방식대로” - 자율성에 대한 요구

청소년기는 자율성에 대한 의지나 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다름 아닌 자율성을 침탈당한 경험에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상담·치료작업을 시작한 청소년들이 과정에서라도 자율성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건 당연하다. 내가 나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진단결과를 알고, 내가 원하는 해소 방식이기 때문에 상담을 시작하고, 상담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어디까지 공개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나는 상담이면 좋겠다는 청소년들의 바람은 모두 자율성에 대한 요구와 맞닿아 있다.

“심리검사 결과는, 심터로 가는데 나중에 제가 이걸 봐도 되겠다 싶을 때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나 궁금하다고, 옛날에 했던 거 결과 어땠지. 그럼 그때서야 보여주고. 근데 좀 혼란스러운 친구들, 입소한 지 얼마 안됐거나 한 친구들은 안 알려주시고. 상담 처음에 딱 하라고 했을 땐 좋게는 생각이 안 됐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요. 나를 더 알게 되고, 내가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감이 오고, 내가 어느 순간에 화가 나고 이런 게 자세히 써 있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니까. 나도 몰랐던 무의식 중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개별상담하면서 인정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인정해, 아 내가 그렇구나. 그리고 혼자 또 생각하는 거죠. (...) 예전에 개별상담하면서 욱하고 화를 내던 것이 되게 줄었거든요. 이제 또 그런 게 줄어드니까 우울감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걸 내 방식대로 해소해야겠다고 할 때 그 때 다시 상담을 하고 싶어졌어요.”

- 전지예

“(만약에 학교나 심터 실무자 선생님들이 ‘우리가 서로 얘기 나누면서 위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줄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걸 상담선생님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담 받아보면 어때?’라고 이야기를 건넸다면 내가 귀찮아서 상담을 보내나 하는 느낌은 안들 것 같아요?) 진심은 알겠는데... 그래도 ‘만약에 샘한테 얻을 수 없는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부탁할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 비밀 보장이 아니면 비밀 보장이라고 거짓말 안했으면 좋겠고, 결과는 제대로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나만 얘기 안했으면 좋겠고, 상담 받는 시간을 안 정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만나는 시간은 정할 수 있지만, 끝 시간은 내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의진

치유작업자 최현정은 심리치유 과정에서 자율성이란 ‘자기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지 알고 그걸 위해서 넓은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²¹⁾며 ‘그걸 잘 파악하고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치유의 목표’인 만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치유작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대안적 심리치유작업에서 내담자의 역량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조되는 ‘치료동맹’ 혹은 ‘작업동맹’은 청소년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만나는 시간, 진단검사지의 목적과 쓰임에서부터 상담 내용의 기록과 보관, 정보의 공개 범위, 치유의 목표 설정, 종결의 시점까지 모든 과정에서 내담자와 하나하나 의논하면서 약속을 정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치유과정이고 치유작업의 윤리이며 치유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기도 하다.²²⁾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방어하고 고집할지 아니면 변화를 선택할지 그 결정이 온전히 나에게 달려 있음을 깨닫고 선택을 존중받을 때, 사람은 변화를 선택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에겐 동맹의 주체로서 상담자나 치료사로부터 자율성을 존중받은 경험이 많지 않다. 치유작업자 남일량은 치유작업자가 어떤 목표를 갖고 택하는 행동의 의도를 청소년과 공유할 때 협력적 동맹관계가 깨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21) 지역 사회 활동가인 에반 스타크Evan Stark와 앤 플릿크래프트Ann Flitcraft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치료목표를 자율성의 회복과 역량 강화에 두었다. 이들은 자율성을 “자신의 권익을 분명히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고 유연하고 침착한 것…… 그리고 중요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역량 강화는 “개인이 자율성을 지니면서도 서로 간에 지지를 모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주디스 허먼, 앞의 책, 226~227쪽.

22) 로저 D. 팔로&맥신 해리스가 공동 저술한 「이해에 기반한 트라우마 케어 문화 만들기: 자가 평가 및 계획 프로토콜」(Creating Cultures of Trauma-Informed Care, CCTIC)은 내담자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으로 안전, 신뢰, 선택, 협력, 임파워먼트를 제시하고 있다. ‘안전’은 신체적, 심리정서적 안전감을 보장받는 것을, ‘신뢰와 투명성’은 기관의 가치와 재정, 내에 관한 정보의 흐름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과 존중’은 치유프로그램의 배경과 목표, 과정 전체에서 나의 선택과 통제력이 존중되는 것을, ‘상호협력’에서는 내담자와 치유자, 기관의 직원, 당사자와 가족 등 사이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돌봄과 동료간 지지’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 사이에 치유 공동체가 형성되고 집단(공동체) 속에서 힘이 강화되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임파워먼트(역량 강화)’는 내담자가 자기 감정과 자기 안의 힘을 발견하고 문제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관계 속의 자율성’임은 분명하다.

“부모가 정보를 요구하면 당장 피해가 아이에게 갈 경우 말해드릴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는 걸 원치 않는 경우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아이와 저의 신뢰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야기 안 드리려고 한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해야겠죠. (...) 모든 **내담자 아이와 대화를 해서 같이 규칙을 정한다는 게 중요하죠.** 다른 기관에서 의뢰할 때는 본인이 허락한 경우만 전달한다 이렇게.”

- 최현정, 몽실 초청 워크숍(2016.06.02) 중에서

“(아이가 아니라) 청소년이니까 ‘너는 나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싶니?’ 물어봤어요. (...) 다른 아이들은 오늘은 이거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받아들였는데, **어떤 애는 오늘은 이거 이거 할 건데 하고 얘기하면 골라요. 골러가는 게 싫으니까.** (...)한 시간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게 해요. 평가를 하기 전에 ‘오늘은 이런 이런 주제로 이렇게 했어. 이걸 보고 너는 어땠니?’ 하고 물어보면 애들이 평가를 써요. 그 평가를 읽어줘요. ‘오늘 너는 이렇게 했구나. 너는 이런 평가를 했구나. 내가 잘 썼는지 봐봐’ 하고. 이게 인지 훈련도 되지만, 그것도 제 의도인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되니까 훈련의 차원에서요 해요. 이게 훈련이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방어가 심했다고 한 아이는 몇 번 하고 나니까 이걸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왜 자꾸 얘기해주냐고,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차원에서 청소년들과 할 때는 이렇게 해, 라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네, 그러다라고요. **이유없이 자기가 강압적으로 듣는 건 싫은 거예요. 왜 하는지 이유가 분명하고 자기가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는 거죠.**”

- 남일량(치유작업자)

“(상담의 종결 시점에 대한 판단은) 해보면 애가 관찮아졌다가 느껴져요. 그리고 **둘이 의논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소통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오케이 종료하자. 그건 어른들하고도 똑같아요. 청소년이라고 다르지도 않고.”

- 이두현(치유작업자)

3) “나랑 맞는 사람” - 개별성에 대한 존중

나랑 맞는 친구와 관계가 더 깊어지듯, 청소년들은 상담에서도 성향과 맞는 사람이나 당시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채워줄 수 있는 치유작업자를 만나길 원했다. 치유작업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있어도 하나의 정답이나 모델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내담자인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원칙이

지만, 청소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 힘들어할 때 그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치유작업자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 작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내담자인 청소년들이 가진 성향이나 놓인 상황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의진은 상담이론도 그렇고 자기가 만난 상담자들도 모두 개별성을 무시한 채 ‘표준적으로 말하는 느낌’이었다고 짚는다. 박우영은 나아가 자기랑 맞는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인권이라고 말했다. 치유작업자 남일량 역시 본격적인 상담 회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종의 ‘면접’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미술치료 갔을 때 진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정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막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나는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얘기가 너무 싫었어요. 맨날 갈 때마다 너가 오늘 하고 싶은 거 생각해 오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생각해오라고. (...) **저는 그냥 그랬구나, 어땠니 하는 사람보다는 조언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조언을 받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나는 괜찮은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조절해나가면서 그런 사람 어디 없을까요? (...) 상담 관련 책 보면서 내담자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대처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나는 상담이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저런 걸 보고 배우면서 저렇게 행동하라고 배우는구나... 내담자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보는 거 같다? 다양한 사람이 많은데, 상담사랑 눈 마주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답은 하나밖에 없고 그런 느낌? 그냥 표준적으로 말하는 느낌.**“

- 이의진

“사람마다 상담을 해주는 스타일이 달라요. 우선 얘기를 둘 다 들어주는데 한 명은 ‘어, 그래?’ 위로 해주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위로를 받고 싶은 성격이 아니라 저는 약간 해답을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 정유현

“**자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존중은 해줘야죠. 인권이 있으니까.** 안 맞으면 오히려 상담 받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어서.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데가 많지가 않아요.”

- 박우영

“처음에 10회 들어가기 전에 ‘너 만날 상담사가 이렇게 생겼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말투는 어떻게, 보여주기 위해서 널 만나야 해. 나도 너를 봐야 다음에 상담하러 올 때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연락을 하면 애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어요. 하겠다고 한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거 쪽 물어보고, 내가 상담사인데 10회 만날 건데 너를 나한테 맡겨도 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고.”

- 남일량(치유작업자)

4) “때가 됐다 안 됐다 보여요” - 각자의 시간에 대한 존중

심리치유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도 사람마다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지는 다르다. 지금은 청소년상담사를 꿈꾸고 심리치유 경험을 인생의 전환점이라 말하는 전지예도 쉼터에서 생활하는 3년 중에 2년은 “왜 자꾸 나를 판단하냐”고 거부감을 보였다. 전지예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기관 내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했던 집단상담이 청소년들에게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전지예는 사람마다 준비됨의 정도와 받아들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전지예의 이야기는 청소년에게 심리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도 청소년들 각자의 호흡을 존중하는 일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치유작업자인 노경자 역시 준비가 안 된 청소년과 치유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잘라말한다.

“집단상담은 반응이 되게 갈리는 거 같아요. 다 하기 싫는데 좀 하다보니까 나아지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상처를 꺼내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자기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고, 그래서 더 벗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 (개별상담 과정에서) 너는 이런 사람인데 너를 감추고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처음에 인정을 안 했어요. 화를 냈어요. 저 이런 사람 아닌데 절 뭐 안다고. 근데 그걸 인정하게 됐죠 어느 순간부터. (...) 제가 훈련이 된 거 같아요 이젠. 근데 받아들인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 항상 주변에 보는 게 쉼터 애들밖에 없으니까 보여요. 애는 상담 정말 받아보면 좋겠다, 애는 아직 안 되겠다. 지금 사는 애들이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도 자기 모습을 숨기고 절대 얘기 안하려고 하고. 가끔 쌤들이나 누군가가 흘려줘요.

‘굳이 그렇게 착한 척 안 해도 돼.’ 그럼 딱박 우겨요, 자기 아니라고. 그럼 재는 아직 얘기할 준비도 안 됐고 들을 준비도 안 됐구나. 근데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잘못된 점 얘기했을 때 그나마 들려고 하거나 자기한테 관심 많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 이거 뭐라 설명해야 하나? 같이 지내보면 알아요.“

- 전지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상담 해봐야 솔직히 효과 없어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럼) 상담이 안 되는 거죠.”

- 노경자(치유작업자)

그럼에도 심터와 같은 자립지원기관에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집단상담의 경험은 아동학대나 폭력 경험으로 고립되었던 청소년들에게 유사한 시련을 거친 동료들 발견하고 그들과 힘을 교환하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 주디스 허먼은 『트라우마』에서 피해 생존자 집단(공동체)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외상 사건은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끈을 파괴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존재감, 자기 가치감, 인격을 지켜낼 수 있음을 배운다. 결속된 집단은 공포와 절망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책을, 그리고 외상 경험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를 제공한다. 외상이 고립시킨다면, 집단은 소속감을 재생한다. 외상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낙인을 가한다면, 집단은 증인이 되어 경험을 인정한다. 외상이 피해자를 격하시킨다면, 집단은 그녀를 존중한다. 외상이 피해자의 인격을 부정한다면, 집단은 그의 인격을 회복시킨다.”²³⁾ 성매매 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1:1과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에서도 같은 경험을 지닌 멘토와 연결되면서 상호성장이 촉진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²⁴⁾ 그러나 집단의 결속이 중요하다고 해서 각자의 호흡을 존중하지 않은 채 집단상담 프로그램 안으로 밀어넣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청소년 각자가 내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집단 안에서 문제를 풀어보고싶은 의지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23) 주디스 허먼, 앞의 책, 355~359쪽.

24) 이정희(2009), 「탈성매매 청소년의 자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9호.

5)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 동등한 존재로 마주하기

모든 치유관계는 치유자(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위계적 권력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대안적인 치유이론들은 전형적인 치유자의 권력을 거부하고 ‘치유권력관계’를 동등한 ‘동맹(계약)관계’로 전환 시키고자 한다. 대신에 내담자(생존자)의 힘에 주목한다. 내담자(생존자)에게 ‘치유의 창조자이자 조정자’라는 위치를 부여하고, 외상 경험으로 일시적으로 약해진 내면의 힘이나 잃어버린 자아를 주체적으로 되찾는 과정을 치유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여성주의상담자의 잠재적 권력은 역설적이게도 내담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규정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전형적인 상담자의 권력을 거부하는데서 나온다.(...) **여성주의 상담은 내담자를 자신의 삶과 고통의 의미, 상담의 목표, 상담의 성공에 관한 전문가로 본다.**”

- 로라 브라운, 『여성주의 상담의 전복적 대화: 젠더와 권력의 전복』, 163쪽, 171쪽

“회복의 첫 번째 원칙은 생존자의 역량 강화에 있다. **생존자는 치유의 창조자이자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이들은 조언을 제공하고 지지를 전하며 도와주고 애정과 보살핌을 쏟을 수는 있지만, 회복 그 자체를 마련해주지는 못한다. (...) 환자가 전통적인 의학 체계나 정신건강 클리닉 안에 있을 때에는 무력하고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경험이 수용되고 힘이 인정되는 지지적인 심터에 있다면 ‘강한 생존자’처럼 보일 것이고, 또한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 주디스 허먼,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225~227쪽

비청소년과 청소년의 관계가 기울어져 있는 사회에서 치료전문가인 비청소년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은 더욱 불평등한 관계로 만날 위험이 높다. 비청소년과는 달리 청소년의 경우에는 내면의 힘이 ‘없거나 미약하다’거나 자아가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다는 전제도 강력하다. 어떤 폭력적 경험들로 자기를 보호할 역량이 줄어들었는지에 주목하기보다 ‘애들이라서 힘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청소년의 강점일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문제점으로 진단하면서 고칠 것을 요구하는 일들도 발생한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엔 더욱 기울어진 치유관계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 치유작업자 최현정은 어린시절의 학대경험으로 자아를 확립하기 힘들었던 이들과 생존의 힘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노경자 역시 ‘견뎌낸 힘이 자기에겐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과정’이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성인기에 어떤 힘든 경험을 하신 경우에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다는 게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경험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나라는 게 발달하거나 확립되기도 전부터 ‘학대받는 나’가 발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료자들이 심지어 그런 환경에서도 생존했던 걸 간과하긴 해요.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겠죠. (...) **중독이나 자해 등 심리적 증상이라고 보는 건 학대받는 환경에서 굉장히 뛰어난 생존전략인 거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고 학대에서 벗어났고 그런데 생존 전략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 부적절하다, 문제가 있다? **이 사람에게서 이게 생존의 힘이었고 생존기능을 봐주는 게 심리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과거의 자기 학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지지받고 수용받으면서 자기가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면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진짜로 놀랄 만한 나레이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 최현정, 몽실 초청 워크숍(2016.06.02) 중에서

“아동학대를 굉장히 심하게 받았던 아이였거든요. 그동안 자기 모습들을 안 보려 하고 밀어내고 그랬었는데 그걸 한번 직면해서 보고, 그 힘듦에서 어떻게 자기가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그게 누구의 힘이었는지 집중적으로 아이와 탐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견뎌낸 게 바로 자기 스스로였던 걸 알게 되면서, 되게 너무 좋다, 힘이 됐다...**”

- 노경자(치유작업자)

“그래서 친구가 좋죠.”라는 이의진의 이야기처럼, 치유관계에서 청소년들이 동등한 관계를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상담자가 친구와 똑같아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질 수도 없다. 지식과 임상훈련을 통해 단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일은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에 속한다. 전지예의 통찰처럼 상담자의 입장에서 먼저 보이는 것들도 있는 것도 당연하다.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만난 청소년들은 ‘상담자 : 내담자’, ‘선생님 : 청소년’의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애쓴 상담자와의 만남을 좋은 기억으로 떠올렸다. 이의진은 누구는 묻고 누구는 대답만 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담자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정유현도 자기를 비난하거나 편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릴 여유와 시야를 갖도록 도와준 대화가 도움이 되었다고 기억했다.

“저는 좋다고 느꼈던 상담이, 정말 상담 선생님과 내가 아니고, **그냥 같은 눈높이의 사람으로서 얘기를 나눌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 같이 하면서도 배려하는 것이... 그때 제가 어렸는데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일단 불안하지 않게 해주고. 자기가 먼저... **선생님들한테는 눈에 보이잖아요. 얘가 지금 돈도 없고 무슨 상태라는 게.** ‘옛날에 나도 어렸는데 너랑 되게 비슷한 거 같애’ 그럼 저도 술술 얘기하고. 자기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이버포레 선생님이 저희 쉼터에 옛날에 살던 언니였다고. 그래서 좀 더 공감대가...**”

- 전지예

“초등학교 때 그 사람이랑은 좀 관찰았던 거 같아요. 이제 기억나네. 그 사람이 제일 좋았어요. 그 사람이랑 그림으로 시작하기는 했는데 장난감으로 놓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환일기를 쓰게 됐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날에는 내가 쓰고 쌤이 답변을 쓰고, 쌤이 갖고 있는 날에는 쌤이 쓴 다음에 나한테 주고. 자기 얘기도 쓰고, 자기도 오늘 있었던 얘기 쓰고. 공부방에서 연결해준 상담 선생님이었어요. **나만 말하지 않고 상대방도 나를 믿고 말해주는, 서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친구가 좋죠.”

- 이의진

“친구들하고 클럽가고 술 마시고 엄청 즐겼는데, 그러고 집에 갔는데... 아빠가 옛날부터 ‘너 자꾸 그러면 절 보낸다, 너 자꾸 그러면 정신병원 보낸다’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절 정신병원에 보낸 거예요. 거의 끌려서 갔죠. 그 때는 막막했죠. 사회복지 선생님이 제가 어리니까 처음에 저한테 말을 걸어주셔서 그 때 상담을 많이 했어요. **둘이 옥상에 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병원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힘이 됐고. 한달 반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고 나서 밖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저 담당 의료진이랑 상담을 한단 말예요. ‘요샌 어떻게 지내요? 술은 언제 언제 마셔요?’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상담이, 그래도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에 또 많은 위안을... 그 선생님이 엄마, 아빠를 만났어요. **엄마의 입장도 듣고 저의 입장도 듣고 중립상태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만약에 너가 딸 낳았는데 이러면 어떨 거 같애? 엄마 생각도 해 보는 건 어떨 거 같애?’ 이렇게 해주셔서... 의료진 상담 끝나고 나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만나서 또 했어요 상담을. 그 때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됐죠.”

- 정유현

치유작업자 이진과 이두현이 치유작업에서 만난 청소년들과 반말을 쓰는 이유도 동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동등한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청소년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고, 청소년이 비청소년 밑에 있는 게 익숙한 상태에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직하게 소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치유작업자인 노경자의 이야기에서는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다’는 표현이 귀에 쏙 들어왔다. 상담자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하는 태도 역시 관계의 불균등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저희는 반말을 쓰거든요. 청소년과 성인 갭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좀 더 힘들긴 하죠. 근데 그렇게 평등하지 않으면 자기 얘길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성인이 위에 있고 청소년이 밑에 있는 게 익숙하니까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많이 힘이 들어가죠. (평등을) 보통은 위에 있는 사람이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선생님이니까, 어른이니깐 너한테 해줄게.’ 그러면 벌써 또 그것도 거부감이 들거든요. **평등하게 하겠다는 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 정직하게 만나겠다는 거지,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 이진(치유작업자)

“해석 상담이라고 해서 짚어주면 애들이 놀라는 거죠. ‘어, 이 사람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았네?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 눈엔) 이게 지금 보이네, 이리이런 부분이 이럴 거 같은데?’ 하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이렇게 쏟아내게 되는 거죠.”

- 노경자(치유작업자)

6) “틀에 갇히지 않게” -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 밖에서의 변화

청소년들은 상담실 안에서나 비청소년 상담자 앞에서 감정을 토해내거나 들키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의진은 “울기 싫어서 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올라오는 걸 꼭 참고 마음 가라앉았다고 생각하곤 얘길 꺼냈는데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그때 왜 울었지?”라고 기억을 떠올렸다. 자기 감정을 아직 가둬두고 싫어서일 수도 있고, 상담자에 대한 경계심 때문

일 수도 있고, 상담자가 자기를 판단하면서 우위에 서는 일을 막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전지에도 가장 마음이 풀렸던 순간으로 ‘아무도 없는 쉼터 예배실에서 아무거나 말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정유현도 심리치유가 아닌 자서전 쓰기 수업의 경험이 ‘어쩌면 인생의 터닝포인트’일 수 있다고 고백했다. Edgette는 청소년들의 변화는 “회기가 아닌, 상담자나 부모의 눈이 미치지 않고, 또 공공연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상담 현장의 밖에서 시작될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방식”²⁵⁾이라고 해석한다. 청소년만 그럴까. 몸에 난 병은 의사의 처방으로 나왔다고 해서 수치스럽지 않지만, 마음에 있는 고통은 외부의 처방으로 나왔다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나 그러하듯 청소년들도 자기 힘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싶어한다.

“상담을 하면 너무 딱딱해요. 마음의 문을 열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기보다는 공원에서 같이 뛰놀면서 몸 부대끼면서... (...) 쉼터에 미술치료 하러 오는 선생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만드세요’ 하면 점토 갖고 만들잖아요. 꼭 집어서 말씀하세요. ‘우영이는 하늘을 보고 있네. 왜 볼까?’ 친근함이 오는 거예요. 장난치듯 속마음을 말하잖아요? 그 쌤이 그런 식이에요.”

- 박우영

“최근에 늘푸른자립학교에서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틀에 박힌 프로그램 이런 거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바다 보러 가고 뭐 어디 산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쌤들이랑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애들이랑도 얘기하고. 근데 딱 프로그램이라고 모여보세요 했던 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정말 좋았던 거죠. 두 명씩 마주보고 앉아서 못했던 말들 귀에다 조용히 하는 거라고 불고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다. (...) 상담이든 치료든 틀에 갇히지 않게, 좀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거 하세요, 몇 분까지 하세요 말고, 조금 더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는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냥 앉아서 하는 것만 말고도 활동적인 것도. (...) 개별상담도 주제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이번 주에 누가 뭘 했는데 진짜 짜증났다, 기분이 이랬다.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느낌?”

- 전지예

25) Janet Sasson Edgette, 앞의 책, 24쪽.

“솔직히 가장 좋은 건 같이 생활하는 거죠. 근데 여교사면 안 되니까 그럴 땐 그냥 뭐 친해져야겠
죠. 사적인 관계에서 밖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든가. 진짜 여교사가 허락한다면 자기 집 데려가
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괜찮고.”

- 이민수

“굳이 상담이 아니더라도 배우고 싶은 거, 같이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같이 가주고. 너무 한
장소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말이 안 나와요. 진실이지도 않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
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나는 상담 쌤들보다는 버스²⁶⁾ 쌤들이나 그런 쌤들한테 더 위안받
았던 것 같아요. 상담받을 때는 월요일 7시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꾸준히 가야 하잖아요. 근데 버
스 쌤들한테는 화요일인데 힘든 일이 생기면 얘기할 수 있고 날짜 상관없이 계속 얘기할 수 있고,
오래 만나고.”

- 이익진

“과거 얘기... ‘너 옛날에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너는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이랬을 거야’ 자기 맘대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과거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 제가 별로 생각도 안했거든요. 지금 열심히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이었는데... 항상 변명? 변명만 늘어났던 거 같은데 자서전을 쓰고 나니까 그래도 답이 생기더라
구요. 변명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오늘을 살면 되는 거고, 나도 똑같이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사람
인데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자서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일
수도 있나요?) 예. 어떻게 보면.”

- 정유현

청소년들이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는 상담이나 구조화된 프로그램보다 틀에 갇히지 않은 만남을 청
소년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전형적인 상담구조가 요구하는 정기성과 형식성에 대한 반감
에서부터 자기 힘으로 변화를 시도하고픈 자율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세상이 아직 신뢰할 만하다는
믿음을 회복시켜준 일상적 지지관계는 상담실 바깥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발견까지 여러 이
유가 중첩되어 있다. 그렇다고 치료실에서의 상담이나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쓸모없다고 볼 수는 없

26)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가 운영하는 이동상담센터를 말한다.

다. 전문적인 치유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도 있다. 다만 청소년 심리지원사업을 구상할 때 고정된 틀로만 접근하지 않는,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필요하다. (사)여성인권동감이 상담이나 치료라는 말 대신에 ‘나로 살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늘푸른자립학교가 상담 대신에 ‘데이트하러 갈래?’라는 자기만의 언어를 발견하려 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청소년을 상담실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찾아가 일상적 지지체계가 되어주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역시 이런 현실을 적극 감안한 결과 탄생한 정책이다.²⁷⁾ 심리정서프로그램보다 더 치유적 효과를 갖는 것은 오히려 일상적 지지 체계일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꼭 앉아서 이렇게 상담해야 상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사람 많은 데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같이 가보자 하고 ‘사람 많은 데 가보고 어땠니?’ 이렇게 부딪혀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노경자(치유작업자)

“보통 정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프로그램이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상담에서는 비구조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이나 과정에서 거기에서 그 관계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의자 놓고 이렇게 안 해요. **선생님이나까** 들어줄게,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정말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 이두현(치유작업자)

27) 하성민에 따르면 약속된 만남뿐 아니라 전화통화도 가능하고 영화를 본다거나 하는 다양한 만남의 형태가 시도되기 때문에 청소년동반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치 않는 검사를 요구한다거나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황과 관계없이 3개월로 지원이 종결되는 방식에 대한 불만도 현장에서선 제기되기도 한다.

“밖에 나가서 나쁜 사람한테 뭐 당하면 어른들 말도 다 믿기 싫고 너무 싫은 거예요. 처음 심터 들어갔을 때 상담실장님도 안 믿었어요. 믿는 데까지 시간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근데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쁜 어른들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어? 이 사람 내 옆을 안 떠나네? 뭘 바라질 않아요 저한테. 다른 사람들은 뭘 바라고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 전지예

“우리 애들이 규칙적으로 누구한테 돌봄을 받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애네가 가출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 팸장인 오빠의 말을 잘 듣는다거나 이런 건, 꾸준히 그 자리에 가면 누군가가 있다는 게 힘이 되거든요. 분리불안도 외상이예요. 일찍 버림받거나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처음 봤는데 되게 친한 척을 한다든지 그 모습도 사실 외상이예요. 외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 시간에 가면 그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아웃리치 버스 선생님들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애네들한테는 치료사도 한 선생님이어야 해요. 꾸준히 한 선생님. 1388도 있고 그렇지만 선생님들 변화가 너무 많잖아요. 거기 가면 그 선생님이 계속 있더라, 느티나무처럼. 다들 정서지원이잖아요? 드림이든 동행자든. 이 아이들한테는 필요한 게 지지가 아니라 **같은 사람, 같은 목소리로, 같은 흐름을 가지고 만나주는 사람들.**”

- 남일량(치유작업자)

Ⅲ. 청소년과 함께하는 심리치유, 무엇을 더 질문

해야 하는가

청소년들이 상담·치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와 의미있는 치유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고 싶은 그/녀들의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낙인, 대상화, 엇보기, 강제, 교정과 같은 낱말로 대표되는 상담·치료 경험에서 청소년들은 존엄한 존재가 아닌 ‘증상’으로 취급받았다고 토로한다. 이번 연구과정에서 우리는 실제 상담·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효과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자립지원기관들도 의외로 많다는 걸 발견했다. 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는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거주하는 그룹홈에 대해 “상담만 연계하면 자기 역할을 다했다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상담·치료가 기관의 책임을 더는 알리바이로 활용되는 경향에 분노를 표했다. ‘상담 바우처’가 지원되는 곳에서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필요나 청소년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담을 연계하기도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치유의 목표가 존엄의 회복이라면 증상이나 환자로만 취급된 경험 속에서 치유가 가능할 리 없다.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 미성숙한 사회에서, 치료전문가의 권력이 제대로 검토·제어되지 않는 사회에서, 심리치유현장에서 청소년이 존중받는 경험은 예외적으로 인권감수성을 갖춘 치유작업자와의 우연한 만남에 기대어 있다. 엄밀히 말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는 치유의 본령에 어긋나기에 치료가 아니다. 우리가 만난 청소년과 치유작업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심리치유’가 되기 위해 심리정서지원사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었다. Ⅲ장에서는 청소년 자립지원현장과 심리치유현장이 몇 가지 더 생각해보면 좋을 지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

청소년을 치유과정에 연계하는 이들은 아무래도 ‘증상’이 먼저 보이고 우리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미안함이나 변화를 바라는 다급함에 연계기관을 찾는 것을 우선하기 쉽다. 그러다 보니 연계한 상담·치료기관이 어떤 철학으로 청소년을 대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리곤 한다. 관심을 가진다 해도 워낙 심리치유영역이 전문가의 성역처럼 여겨지고 치유과정에

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밀의 영역에 남겨져 있다 보니 판단 근거를 얻기도 쉽지 않다. 청소년 자립지원현장의 실무자/활동가들이 좋은 심리치유사업과 치유작업자를 분별할 줄 알고 꼼꼼 점검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심리치유과정'이 견지해야 할 원칙들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먼저 공론화되어야 하고, 치유작업자들의 세계 속에서도 더 깊이 공유되고, 정책과 시스템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치유작업자를 양성·재교육·슈퍼비전 하는 과정에서도 인권 관점과 청소년의 존엄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청소년은 다른 사회적 약자 집단이 그러하듯 기본적으로 생존자 정체성을 갖고 있다. 열악하고 모욕적인 사회환경에서 '아직 인간이 아닌'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보호자에게 의탁하여 생존해야 하는 비독립적인 존재들이 자기를 긍정하기란 쉽지 않다. 바로 그 종속성이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 아동학대, 공격적 훈육, 체벌, 실패자/부적응이라는 낙인 등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있는 위협이다. 특히 '위기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형과 깊이의 폭력을 중첩적으로 경험할 확률이 높다. 폭력이란 한마디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받는 경험이다. 위기청소년의 자존감이 낮다거나 불안이나 우울감이 높다는 검사결과들을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그런 반응들은 이와 같은 폭력적 환경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보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만하다.

문제는 청소년을 심리정서적으로 무력화된 피해자나 환자, '폭탄'으로 여기기만 할 뿐, 그/녀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떤 자원을 활용하면서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서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데 있다. "맞고 자란 아이는 때리는 부모가 됩니다. 학대받고 자란 아이는 학대하는 어른이 됩니다." 어느 구호단체의 광고가 실어나르는 통념과는 달리, 아동학대 생존자들이 커서 학대를 되풀이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²⁸⁾ '역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역경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더

28) 일본의 임상연구자인 조지 보나노는 『슬픔 뒤에 오는 것들』(초록물고기, 2010)에서 "가난과 학대가 미치는 악순환의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서 불우한 여건의 아동들 모두가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것은 아니다. 놀랍게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잘 극복한다."고 말한다. 프르마 월시는 『가족과 레질리언스』(나남출판, 2002)에서 '가족과 환경의 위험한 요소들과 삶의 부정적 사건들이 아동기와 후기 성인기에 필연적으로 장애를 초래한다는 지배적 관점에 반대되는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는데, 위험요소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위험요소에 노출된 아동의 절반 이상에게서 의미 있는 장애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아동학대 생존자들이 성인이 되어 자녀를 학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피해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학습화된 무기력'이 가능하다면, '탈학습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디스 허먼은 아동기 생존자들의 재피해자화에 오히려 주목한다. "아동기 학대의 생존자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가해하기보다는 또 다시 피해자가 되거나 스스로를 해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놀랍게도, 생존자들이 가해자로 성장하는 경우는 사실상 그리 흔하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가해자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나 ‘외상 후 성장’ 개념은 비청소년에게만 해당하는 심리학 용어가 아니다. 어린 사람들도 고통 속에서도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외상에 대처하는 더 나은 심리적 구조를 재구성하면서 가해자와는 다른 삶을 재건한다. 반대로 심리적 재건을 이루는 데 실패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그/녀들이 단지 나이가 어려서거나 존재 자체가 미숙해서가 아니다. 회복을 도울 자원이나 정보, 의미망, 관계망 등으로부터 단절된 결과다.

“회복력 혹은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관한 연구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외상 후 회복'을 이루어내려면 관계의 응집력, 사회적으로 구성된 사건의 의미, 사회적 지지,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정도 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넌 몰라도 괜찮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상황을 이해할 정보나 지식에서 소외될 때, 회복은 더 늦춰진다. (...) 진정한 위로는 연민이 아닌 상실의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나온다. 한 형제자매의 이야기처럼, 이들이 경험한 상실은 단지 어린 나이에 친구와 형제자매를 잃은 안타까운 경험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만 조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 사회적 상실이다.”

- 배경내, “세월호 ‘10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다시 봄이 올 거예요』, 346~347쪽.

비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도 치료 대상이 아닌 자율성을 지닌 주체로 존중받을 때 자기 안의 고유한 힘을 (재)발견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리치유기관은 물론이고 심리치유프로그램을 기획·섭외하는 자립현장도 해당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투명하며, 자율성을 존중하고, 청소년과 치유자와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치유작업자들과 ‘치유적 공동체’는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교사나 자립지원현장 실무자들은 청소년에게 치유작업을 제안하거나 치유기관에 연계하면서 ‘청

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소수는 명백히 있다. 외상은 일반적인 젠더의 전형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 학대 과거력이 있는 남성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공격성을 풀어내려는 경향성이 높은 반면에, 여성은 자해하게 되거나 다른 이의 피해자가 될 경향성이 높았다.” 주디스 허먼, 앞의 책, 196~197쪽.

소년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치유 '전문가'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시작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의 말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상담자도 별로 없고 효과도 없고 받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지난번 했던 걸 또 하게 되는' 모양새가 태반이다.

특히 자립현장 실무자들이 가진 불만의 핵심에는 개별 청소년의 상황에 맞지 않게 심리정서지원 시스템이 경직된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데 있다. 한 실무자는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은 청소년에게 어떤 인지적 훈련과 생활지원을 하면 좋을지를 도움 받고 싶었는데 정해진 매뉴얼대로 심리치료만 진행해서 답답했다고 말했다. 심리치료만 절대화·매뉴얼화하지 않고 실질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심리정서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밀 보장의 원칙'을 경직되게 내세워 실제 필요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 실무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문제다. 실무자들은 지원하는 청소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더 잘 이해하면서 자기 역할을 찾고 싶었고, 돌발행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의논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한 비밀 보장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경계선지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의 인지적인 면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담소는 그 다음 단계가 모래치료였던 거예요. 10회가 넘었죠. 선생님이 그동안 애가 이렇게 이렇게 됐대요. **그건 최초로 상담 의뢰할 때부터 다 얘기한 건데 그걸 지금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속이 터지는 거야.** ‘선생님, 그건 이미 얘기 드리지 않았냐.’ 이놈의 상담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지 여전히 모르겠어요. (...) 정말 아이들별로 다양해야 되잖아요. 경계선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심리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의 실질적인 생활이 사회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해준다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돼. 엄마나 아빠도 굉장히 성실하시지만 인지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런 집안에 왜 심리치료를 하고 있냐고.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런 지원은 안 이루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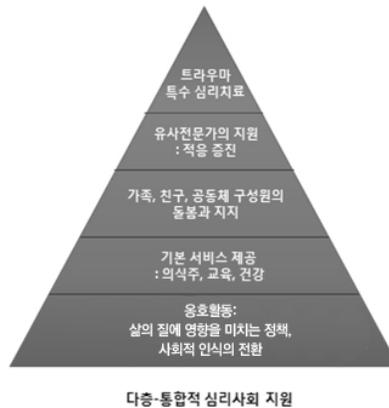
- D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의논의 대상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이의 문제를 좀 더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이 아이를 일상적으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은 다 제외되고.”

“근데 모르는 거 같애. 제외되는 게 아니라...”

- A & D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치유작업자 최현정이 소개한 ‘다층·통합적 심리사회 지원’ 모형을 보면 특수심리치료나 적응 증진을 돕는 심리상담이 차지하는 역할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 모형은 아무도 홀로 치유과정을 밟을 수 없으며, 각종 ‘재난’의 현장에서든 ‘재난’ 이후에든 인간이 관계 속에서만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²⁹⁾ 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상담관계도 도움이 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돌봄과 지지가 가능한 ‘심리사회’를 튼튼하게 다지는 일이다.³⁰⁾ 치유를 특별한 전문적 목표로 삼지 않았지만 치유적 효과를 가져오는 ‘치유적 공동체’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치유작업자와 일상적 지지체계를 담당하는 자립지원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남일량도 치유작업자는 청소년들이 일상적 지지체계에 속한 실무자/활동가들을 계속 만날 수 있

29) 해양 재해의 생존자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면서 탈출했던 이들은 상대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근거가 되는 증상을 거의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디스 허먼, 앞의 책, 109쪽.

30)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이 만들어진 맥락도 이와 같다. 그러나 자원과 예산이 부족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가지는 지역사회 영향력이 높지 않아 실제 원활한 협조와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영양분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때마다 청소년의 동의를 구해 기관과 정보를 공유한다. 치유작업자가 몇 회기만 청소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회기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좋다. 최현정은 나아가 ‘역량강화의 원칙’에 따라 치유작업자는 내담자가 공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다고 제안한다.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뭐다, 그러면 다 같이 움직여요. 경기센터 선생님들이 이걸 학교랑 얘기해야 되나, 부모랑 얘기해야 되나, 심터랑 얘기해야 되나 이런 걸 찾아보고 아이에게 필요한 게 진로다, 인턴을 원한다 그러면 인턴을 연결해주면서 성매매 쪽으로 안 나가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애가 원하는 게 학교에서 뭐다 그러면 학교에 연락하고. 저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센터랑 계속 이야기를 하니깐 그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치료사들이 상담이 비밀이 원칙이라고 해서 센터에다가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엔 공유가 필요해요.** 센터를 믿고 센터도 우리를 믿고,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비밀로 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하는 거니까. 수퍼비전 세션 안에서 센터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듣고 어떻게 할지 같이 찾고 그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는) 처음에 교수님과는 다 공유한다고는 얘기했어요. 내가 너하고 잘 가고 있는지 도움을 받고 점검을 받는다고. 수퍼비전할 때 너 이야기를 한다, 너 작품 괜찮은 건 연구자료로 내가 가져간다, 생명에 위험하거나 위험에 처했다거나 너가 이상하다 싶으면 비밀보장 안 한다 이런 것들 다 동의를 받거든요. 그리고 물어봐요. (센터와 공유가 필요한) 이런 게 있으면 매번. (...) 처음에 상담만 하셨던 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워하세요. 공개가 되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한 해 두 해 하다보니까 이게 필요하거나 저절로 알게 되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엔 지지 체계가 필요하고 내가 계속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센터 선생님들이 꾸준히 만나는 담당을 해야 하니깐. **우리는 애들이 경기 선생님들이랑 계속 만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영양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남일량(치유작업자)

“저희는 코칭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애들에 따라 10회기가 될 수도 있고, 5회기가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애들은 그 선생님을 만날 때 상담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 아시는 선생님과 얘기를 나눈다는 느낌으로 만나니까 조금 편해 하더라구요. **계속 선생님이 애들을 만났으니 회기가 종료된 아이도 만나시는 거죠.** 너는 그래서 요즘엔 괜찮니? 요즘엔 어떻게 지내니? 그런 게 되게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또 하나는 꼭 우리랑 소통을 해야 될 건 선생님이 소통을 해주시는 거예요.”

- F(지역아동센터 실무자)

“이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하는 게 있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 같아서 **저쪽(의뢰기관) 선생님도 아셔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전달할까요 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거죠.** 또 다른 원칙은 역량강화잖아요. (상담과정에서 의뢰한 기관의 문제점을 알게 될 경우) 제가 말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거든요.** 무서워서 이야기 못하겠다고 이야기 하면 무섭지 않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게 상담 주제가 되는 거예요.”

- 최현정, 몽실 초청 워크숍(2016.06.02) 중에서

특별한 심리치유가 필요한 청소년도 있지만, 대다수 청소년에게 더 필요한 관계는 치유적 효과를 가진 일상의 지지 체계다. 지지 체계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청소년을 지원하는 실무자/활동가들의 노동조건을 비롯하여 이들을 위한 돌봄지원체제도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도 물론이지만 머리를 풀어헤치고 달려나온 보호자들도 응급상태이긴 마찬가지다. 특히 ‘위기청소년’을 만나는 현장의 실무자/활동가들은 청소년과 동일한 공포나 분노,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는 청소년들과 달리 그 고통을 모면했고 더 나은 조건에서 살아간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며, 무력감을 방어하기 위해 전지전능한 구원자 역할을 떠맡으며 자기를 괴롭히기도 한다.³¹⁾ 자기에게 자원이 없거나 시스템이 없을 때 보호하고픈 마음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을 통제하는 권위자가 되는 일도 일어난다. 그렇기에 더욱 실무자/활동가의 자기 돌봄과 이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31)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 7장에는 치료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이와 역전에 대한 자세한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 상담·치료 장면뿐 아니라 ‘위기청소년’ 현장에 비추어보아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청소년들을 지원하면서 사실 지원하는 사람도 자기 돌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대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치료자들과 활동가들이 소진되거나 십대들의 트라우마로 이차적 영향을 받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꼭 해주셔야 해요. 소진 되면 정서적으로 둔해지고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에 공감한다거나 지지해주거나 할 수 없거든요. 거리를 두려고 하지. 동료가 협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누가 뭘 잘못했다, 누가 뭘 실수했다고 했을 때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건 트라우마 인식 접근에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조건의 십대 아이들을 만날 땐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수가 아닐 수도 있고. 사람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라서 선생님, 권위자와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가 없어요. 부딪히는 일도 많고. 상담가나 활동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비난하고 평가하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 최현정, 몽실 초청 워크숍 중에서 (2016.06.02.)

이렇듯 심리정서지원사업은 청소년-치유작업자(치유센터)-지지공동체(자립지원기관)가 통합적인 치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동체를 만들고 치유자/실무자를 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기관이나 개인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정책적 지원책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3. 치유의 목표로서 ‘자존감’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청소년 자립지원현장에서 심리치유의 목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흔히 해석된다. 자존감이 낮아 보인다는 것은 심리치유가 필요한 이유로 주로 언급되며, 심리치유의 효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자존감이 높아졌는지 여부가 주로 고려된다. 자존감 척도가 심리치유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다. 우리가 만난 치유작업자들도 “자기의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 “자기를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것”, “자기 감정을 신뢰하는 것”,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자존감의 향상을 주요 목표로 꼽았다. 청소년들 역시 “내가 좀더 나를 챙길 줄 알게 됐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다고 느꼈을 때. 자존감이 높아졌을 때”를 심리치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 순간으로 꼽기

도 했다. 앞서 의미있는 치유의 순간들을 만들어낸 요소로 언급된 자율성이나 개별성에 대한 존중, 역량강화와 같은 말들의 심리적 차원이 바로 자존감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곧장 심리 정서적 문제를 가졌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일까. 자존감만 높아지면 심리적 해방이 완성된 것일까.

자존감이라는 말을 어떤 맥락과 의미체계 속에서 사용할 것인가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다. 자존감이 맥락적으로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때로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위기의 '결과'가 아니라, 위기의 '원인'으로 올라서곤 한다. 이 경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개인의 내면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러하기에 자존감 회복은 위기의 해법으로도 자주 언급된다. 1960~70년대 미국사회에서 자존감 개념이 유행하고 1980년대 학교와 시(市) 정책으로까지 격상되는 과정에서도 '자존감이 향상되면 청소년의 범죄나 마약중독, 자살, 학교부적응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가정이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그 후 수많은 자존감 향상 기술이나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에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세요'라고 속삭였지만, 이 정책들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³²⁾ 한국사회는 유독 자존감을 '내가 얼마나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자기효능감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높다. 자기충족에만 효과처럼 자존감이 높으면 성취력도 높아진다는 믿음을 설파하는 책들도 무수히 발간됐다.³³⁾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이나 능력, 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을 거란 기계적 이분법도 뒤를 잇는다. 청소년의 자존감이 낮은 이유를 부모, 특히 엄마의 양육태도에서 찾는 경우도 다반사다. 엄마들은 죄책감에다 아이의 높은 자존감을 위해 억지로 자기 자존감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부담까지 짊어져야 한다. 엄마들의 고통에 기대어 사회는 책임을 내려놓는다.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강화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자존감 척도가 가르쳐준 '수치'만 접하고 자기를 해석할 '언어'는 만나지 못한 결과다. 이 모든 현상들은 자존감이라는 말이 수용되는 맥락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유를 말해준다.

자존감 회복은 많은 치유작업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심리치유의 목표이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접근이 이루어진다. 자존감을 개인의 내면과 의지 차원으로 좁혀 이해하는

32) JAMES A. BEANE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조작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표현한 자존감은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바로 사라진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JAMES A. BEANE, 1991, *Sorting Out the Self-Esteem Controversy*.

33) 심리학자 바우마이스터는 자존감이 만능기가 아님을 강조하는데, 자존감을 실제로 높이는 처지를 했을 때 수행성도가 좋아졌거나 실제 어떤 유익이 확인된 바가 별로 없다고 말한다. 박진영, 2016,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시공사.

접근은 외려 심리적 해방을 지연시키거나 왜곡하기 쉽다. 자존감에 관한 연구들은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가 함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³⁴⁾ 자존감의 높낮이보다 자존감의 안정성(단단함), 자존감의 원천과 유지방식에 더 주목하는 심리학자도 있다.³⁵⁾ 이 둘을 종합해보면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의 내용과 기준을 무엇으로 채울지, 어떻게 둘의 균형을 잡을지가 중요해진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중요하다. 사회가 과소평가하고 타인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자기를 관대하게 인정하는 사람,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높고 안정적인 자존감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보는 나'의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너만 괜찮으면 돼"라거나 개인의 의지 다지기만 주문할 위험이 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각박한 사회에서 자기라도 자기를 돌보기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반대로 '남이 보는 나'의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타인의 잣대에 휘둘리거나 자존심만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열악하고 모욕적인 환경에서 타인의 인정과 지지에는 아랑곳없이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자존감은 불평등과 차별 구조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결국 자존감은 개인의 자기 인식 문제일 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어떤 위치에 놓여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단지 개인의 자존'감'(感)이 높다 낮다 차원을 넘어서, 사회가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자존' 또는 존엄을 보장하는지(자존감의 사회적 원천)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한 여성이 오랫동안 남성에게 순응하고 그의 필요를 돌보고 그의 일을 발전시키는 것이 자기 의무라고 여기고 그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이 그녀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준다면 주관적-심리적 차원에서 그녀의 자존감은 높을 수 있다. 그러다 그녀가 여성으로서의 존엄에 눈을 떠서 후회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와 같은 자존감 측정 항목에 그녀는 죄다 '그렇지 않다'를 체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것을 문제적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가. <품위있는 사회>의 저자 아비샤이 마켈릿은 주관적-심리적 차원에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의 존엄과 권리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오히려 자존감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한다.

34) 김순혜, 2010, 「청소년의 자존감 결정요인: 자기-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인간발달연구 vol 17, No 4.

35) 심리학자 제니퍼 크로커는 자존감의 원천이 지나치게 외부에 있어서 자존감이 높다고 해도 주변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다면 자존감이 불안하다고 본다. 박진영, 앞의 책.

이처럼 자존감의 '주관적-심리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도 함께 고려할 때 자존감은 더 풍성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과 함께하는 심리치유작업은 치유과정에서 청소년을 대상화하지 않는 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 청소년이 놓인 정치적 현실과 사회적 억압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인정하기, 자기를 사랑하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분노를 안전하게 표현하기, 자기 변화를 알아차리기와 같은 자존감과 관련된 심리치유의 목표들도 청소년의 사회적 자존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고통의 이름들'과 만나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탈가정(가출)을 '살만한 곳에서 살 권리를 찾아 나선 피난'으로 다시 이름붙일 수 있을 때 학대로 인한 외상과 비행이라는 낙인으로 움츠러든 자존감에 새살이 돋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반전(反戰)운동의 맥락에서 외상(트라우마) 개념이 처음 출현했듯, 청소년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회복을 지원하려는 치유작업 역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억압에 반대하는 운동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존감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녀들에게 자기를 구원할 힘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만 오롯이 자기만의 몫은 아님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심리적 지지와 해방을 도울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다.

IV. 나가며 - 청소년의 감각과 통찰이 일러주는 길

‘위기청소년을 만나는 치유작업자들에게 위기의 경험이 부재하다’는 남일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본다. 이 말은 내담자인 청소년과 똑같은 위기를 실제로 경험했느냐에 따라 치유의 질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같은 경험이 있느냐만이 치유의 성패나 유효성을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같은 ‘위기청소년’이라는 범주로 분류된다 해도, 같은 이름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해도, 각자의 고통은 고유한 빛깔과 냄새와 농도와 이름을 지니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누구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고통을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녀들의 존재와 고통과 연결되기를 꿈꾸고, 각자가 고유한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되 방향을 잘못 잡거나 부당한 고통까지 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리정서지원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그/녀들이 걸어올린 감각과 통찰에 지금보다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이 글이 지금도 간신히 힘을 내어 청소년 자립지원현장을 뛰어다니는 실무자/활동가들에게 부담을 더 깊어지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청소년들에게 짐작보다 훨씬 더 큰 치유적 힘이 안겨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기를, 청소년들이 보여준 감각과 통찰이 심리정서지원에서 우선되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이를 바탕으로 더 힘 있게 치유작업자들과 정책부서에 변화를 요구할 목소리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 글이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열악한 위치에서도 청소년의 삶과 고통을 마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치유작업자들에게 일부의 이야기만 부각시킨 기우뚱한 글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의 부단한 노력이 만들어내는 반짝이는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헌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만으로는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이라는 광대한 영역에서 빛어지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걸 함께 기억해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심리정서지원이나 치료라는 이름으로 모욕을 감내해야 했던 청소년들에게 가닿을 수 있다면, 그/녀들이 자기의 감각과 통찰을 신뢰하고 더 큰 목소리로 사회에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트라우마 심리치료는 물론, 열악한 사회환경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심리상담에서도 인권 이슈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인권을 침해한다면 심리치료가 아니다.”

- 최현정, 몽실 초청 워크숍(2016.06.02) 중에서

■ 참고문헌

1) 1차자료 - 강연록·가이드북

- 정희진(2014). 「치유의 정치학과 여성주의」. 광주트라우마센터 강연록.
- Roger D. Fallot, Ph.D. and Maxine Harris, Ph.D.(2009a). 「기관 자가진단 완성을 위한 안내」 (원제: Guide to Completing the Agency Self-Assessment)
- Roger D. Fallot, Ph.D. and Maxine Harris, Ph.D.(2009b). 「이해에 기반한 트라우마 케어 문화 만들기: 자가 평가 및 계획 프로토콜」 (원제: Creating Cultures of Trauma-Informed Care (CCTIC): A Self-Assessment and Planning Protocol)

2) 단행본

-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2013). 『미움받을 용기』. 전경아 옮김(2014). 인플루엔셜(주).
- 너새니얼 브랜든(1994). 『자존감의 여섯 기둥』. 김세진 옮김(2015). 교양인.
- 로라 브라운(2004). 『여성주의 상담의 전복적 대화』. 김민예숙·강문순·손연주 옮김(2012). 한울.
- 박진영(2016).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시공사.
- 배르벨 바르데츠키(2012).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두행숙 옮김(2013). 걷는나무
- 베셀 반 데오 콜크(2014). 『몸은 기억한다』. 제효영 옮김(2016). 을유문화사.
- 브루스 D. 페리, 마이아 살라비츠(2007). 『개로 길러진 아이』. 황정하 옮김(2011). 민음인.
- 오자와 마키코(1992).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 박동섭 옮김(2012). 서현사.
- 은수연(2012).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이매진.
- 전성희(2009). 『거짓말학교』. 문학동네.
- 조지 보나노(2010). 『슬픔 뒤에 오는 것들: 상실과 트라우마 그리고 슬픔의 심리학』. 박경선 옮김(2010). 초록물고기.
- 주디스 허먼(1997). 『트라우마』. 최현정 옮김(2012). 열린책들.
-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2004).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 조용주 옮김(2009). 민들레.
- 크리스토프 앙드레(2009). 『나라서 참 다행이다』. 이세진 옮김(2010). 북폴리오.
- 최현석(2014). 『인간의 모든 동기 : 우리는 어떤 행동을 왜 하는가』. 서해문집.
- 프라마 월시. 『가족과 레질리언스』. 양옥경 외 공동옮김(2002). 나남출판.
-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2016).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창비
- Glenn N. Saxe(2006). 『아동청소년 위기상담-트라우마 체계 치료』. 김동일 옮김(2011). 학지사.

- Janet Sasson Edgette(2006). 『효과적인 청소년상담』. 김영은 옮김(2013). 학지사.
- Rita Wicks Nelson & Allen C. Israel(2014). 『아동청소년 이상심리학』. 정명숙·박영신·정현희 옮김(2015). 시그마프레스.

3) 학위논문·북채터·일반논문

- 김도연·윤선아(2015). 「청소년 대상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최근 연구동향 및 고찰」. 뇌교육연구 15.
- 김동일·최수미(2009).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상담지원서비스효과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2)
- 김명희(2016). 「고통의 의료화와 치유의 문법: 세월호 이후의 지식정치학」.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 김미숙·윤미선(2010).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낙인. 기대. 비자발성. 심리적 반발심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2(2).
- 김순혜(2010). 「청소년의 자존감 결정요인: 자기-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인간발달연구 17(4).
- 김연주(2011).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1(2).
- 김지민·장재홍(2009). 「청소년 내담자의 애착과 상담기대가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 김현미·정민선(2015). 「청소년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2(1).
- 김은정(2013). 「저소득층 십대 여성의 성매매 유입/재유입을 통한 사회화 과정 분석: '구조'와 '행위' 간 이중적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22.
- 김현미·권현용(2009). 「청소년 내담자의 조기종결 관련 변인」. 미래청소년학회지 6(2).
- 김현선 외(2002). 「성매매 피해여성의 폭력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 154.
- 박선정(2015) 「상실 경험 청소년의 적극적 대처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3(1).
- 박순주(2013). 「성매매 여성의 3'노동' 경험 인식과 그 맥락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41.
- 박현선(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37.

- 배라영·최지영(2012). 「청소년 내담자의 저항에 대한 초보상담자의 심리적 경험」. 상담학연구 13(5).
- 서영석 외(2012). 「청소년들의 외상사건 경험」. 교육심리연구 26(3).
- 신윤희 외(2012). 「멘토링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여중생의 스트레스와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1(3).
- 양미진·이영희(2006). 「질적 분석을 통한 비자발적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지속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8(1).
- 오충광(2011). 「내담자의 상담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 개입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효과」. 인문과학연구 31집.
- 이정숙(2014). 「계슈탈트 심리 상담에서 특정 타인과 관련한 미해결감정에 대한 빈의자 대화의 변화단계」. 상담학연구 15(1).
- 이정희(2009). 「탈성매매 청소년의 자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6(9).
- 이춘화·조아미(2005). 「청소년 성매매 사례의 분석을 통한 상습화 예방 및 치료 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7(1).
- 이해경·이경성·신현숙(2004).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 유무를 변별하는 사회심리적 특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1(1).
- 인권교육센터 들(2016). 「“청소년 자립” 밖에서 자립 찾기」 몽실 연구발표회
- 임정원(2014). 「계슈탈트 치료 사례에 대한 현상학적 체험 연구의 고찰」.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4(2).
- 전선영(2012). 「가출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상담평가연구 5(1).
- 최남희·유정(2010). 「트라우마 내러티브 재구성 과 회복효과」 피해자학연구. 18(1).
- 최은진·김미숙·전진아(20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정호(2015). 「청소년 상담에서 내담자의 기대, 작업동맹, 상담자 발달수준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순·김정규(2008). 「내면화 문제를 가진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의 계슈탈트 예술치료 효과 연구」.

구」. 상담학연구 9(3).

· 최현정(2015). 「'PTSD 시대'의 고통 인식과 대응: 외상 회복의 대안 패러다임 모색」. 인지과학 26(2).

· 한영주 외(2016). 「청소년상담에서 상담성가에 기여하는 치료적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3(4).

· Beane, James A.(1991). 「Sorting out the Self-Esteem Controversy」. Educational Leadership v49. n1.

2016년 위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결과 발표

마음의 관리? 마음의 권리!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무엇을 묻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토론문



상담의 기본이자 시작점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 전다예

늘푸른자립학교 청소년

발제문을 읽고 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부제목과 중간중간 들어있는 인터뷰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나' 하나의 입장이 아닌 여러 사람들(또래의 청소년들, 치유작업자)의 경험과 느낌이 새롭게 다가왔다.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사업에 관련된 발제문인 만큼 각각의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나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개인적으로 나는 청소년으로써의 경험밖에 없었고, 청소년 상담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이미 많은 청소년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있는 치유작업자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더 주의깊게 읽었다. 나에게 단지 발제문이 아닌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고 느껴졌다.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들은 풀이가 되어있어서 읽는 것에 큰 문제를 느끼진 않았다. 하지만 관련 지식, 풍부한 경험이 없다는 생각이 크게 자리잡았는지 글을 읽는 것 자체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지금까지 만나본 상담치료 작업하시는 분들은 나를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성장은 누군가의 강요로 인하여 진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꿈 또는 목표를 스스로 정하게 이끌어준다. 센터 실무자들은 옆에서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해 주신다. 이러한 부분이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게 된 가장 큰 에너지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가끔씩 힘에 겨울 때가 있다. 사실 학교를 뛰쳐나오거나, 일찍부터 술을 배워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폭력만 존재하는 가정에서 살아왔거나,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의 절반이 넘는 경우가 많다. 가끔 선생님들이 내가 잘 살길 바라며 '네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씀 해 주시기도 하는데, 부정적인 사회의 모습이 더 익숙한 나에게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공부나, 나에게 과분하다고 느껴지는 수업, 또는 직장생활. 내가 더 많은 사회를 봤으면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힘에 겨울 때는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낼 때도 있고, 듣지

않을 때도 있다. 물론 그 반항하는 정도가 심할 때도 있다. 하지만 너무 상처 받지 않으셨음 좋겠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정말 하기 싫어서가 아닌 낯선 환경에 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잠시 두려워서 그런 두려움들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은 항상 우리들이 외부에서 상처받고, 다쳐서 아파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덜 걱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미 선생님들을 만난 것이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리상담 선생님들과 나의 관계를 돌이켜 보다가 문득 '만약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과연 신뢰를 얻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수도 없이 생각 해 보고 고민 했지만 역시 내가 내리는 결론은 '우리 선생님들 반만 닮았으면...' 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심리 상담가 선생님들이 이대로만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치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만약 들키더라도 그 사실을 부정한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학업, 알바, 가정 등의 이유로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가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16살부터 수많은 위로를 받아 왔던 나는 이젠 더 이상 위로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에 나에게 혼자서 해결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었다.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그 잘못이 불러온 결과 였다. 눈앞이 캄캄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던 순간에 우리 쉼터 상담 실장님이랑 상담을 하게 되었다. 크게 혼이 날줄 알았는데, 상담 실장님은 '잘못 했지? 다시는 안 그럴 거지? 그럼 됐어. 너도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많이 힘들었잖아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다. 이 한마디가 나를 펑펑 울게 한 것 같다. 그리고 실장님은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이 방법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셨다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나는 절대로 하지 못할 말이었다. 이미 신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상담실장님과 나의 관계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상담의 기본이자 시작점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사실 기간이 정해진 것도, 결과가 확실한 것도 아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심'과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상담을 받는 사람, 상담을 해 주는 사람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다.

상상력, 위기/청소년의 마음을 듣다

- 우승연(라이더)

-비온뒤무지개재단 부설 별의별상담소¹⁾

처음 인권교육센터 들의 연락을 받고 웹 포스터를 본 순간, 설렘이었습니다. 가슴 뛰는 문장들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년은 심리상담·치료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마음은 관리·통제의 대상인가, 아니면 인간의 존엄을 가능케 하는 권리이지 역량인가”, “자존감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료와 청소년과 ‘함께하는’ 치유작업은 어떻게 다른가”, “‘위기청소년’의 고통을 개인화, 의료화하지 않으면서 심리정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에 관심을 둔 사람들과 만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게 기뻐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지닌 세계가 어마어마한데 이것들이 어떻게 엮여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읽게 될지 정말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본 보고서를 며칠 동안 천천히 읽었습니다. 단숨에 읽지 못한 채 흠뻑이는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저 또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에 보고서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무거워서였습니다. 행간을 떠도는 술한 내담자들, 그들에게 무심코 던진 말들이 고스란히 되감겼습니다. 다 읽은 후엔 한참을 골몰했습니다. 멍했던 것도 같습니다. 어떤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나, 고민했다기보다는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부끄러움에 부리를 둔 무기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앞서 제가 만났을 ‘위기/청소년’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무지해서 무시했던 순간들을 사과합니다.

비자발적인 상담으로 내몰리는 위기/청소년에게 진단을 남용하며 낙인을 찍는 상담자(치유작업자

1) 별의별상담연구소는 'LGBTQQALGBTQQAI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공간'입니다. LGBTQQAI와 그 가족, 지인 모두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안전하게 개방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이슈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로써 개개인이 보다 자유로운 삶, 편안한 일상을 꾸리도록 지지하고, 스스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며,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 이성애 중심의 상담 및 사회적 시선이 변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다른 의미인 '직업'인의 분류)가 해결책인 양 내놓는 어색하고 답답한 취조 같은 상담이라니 참담했습니다. 정해진 답을 쥐고 공감 뒤로 숨어버린 상담자나 비밀보장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상담실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과연 상담이었을까 곰곰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경계를 세우고 방관자의 자리에서 엿보는 행위, 그것을 상담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자문했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허울로 내담자를 억압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것은 폭력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담자는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와 상관없이 상담자인 자신의 행동/권력에 무지했고 내담자인 청소년/존재를 무시했기에 그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때문에 위기/청소년의 저항은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안전을 위한 생존 전략을 가질 테고 누구보다 폭력에 민감한 위기/청소년이라면 저항을 선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저항은 상담자들이 말하는 방어기제로서의 저항이 아니라, 또 다른 감시 혹은 처벌인 양 놓인 상담에 맞선 자신을 지키는 저항입니다. 것처럼 힘든 순간을 용기 있게 이야기해 준 여섯 명의 위기/청소년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진심 어린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권력에 무지하고 청소년/존재를 무시하는 상담자를 생각해 봅니다. 위기/청소년들이 이야기한 상담자의 문제 행동. 때론 개인의 미성숙일 수도 있고 소속집단의 분위기일 수도 있으며 상담이 지닌 권력의 그림자, 사회의 암묵적 규범일 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모두를 아우르며 '상상력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상력이 없는 상담은,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리지 못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의 틀, 그 경계를 세상의 끝이라고 믿는 미신이 낳은 오만으로 치달습니다. 위기/청소년의 존재를 삭제하거나 언어를 묵살·재단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해석하느라 내담자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상상력의 부재, 그로 인한 폭력은 LGBTQIQA 내담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애정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이성애 질서로 규정한 상담자는 LGBTQIQA 내담자의 언어를 듣지 못합니다. 실재를 망상으로 치부하고 실존적 불안은 신경증적 불안으로 치환하며 정상과 비정상을 가립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를 증상으로 정의 내리고 '고쳐야 하는 것(전환치료)'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청소년일 경우엔 정체성을 탐색한다는 명목으로 더 나은 삶, 올바른 방향인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이성애 질서를 소극·적극적으로 강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LGBTQIQA 내담자는 교묘한 폭력에 노출되고 그것을 내재화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겪은 심리적 고통을 재경험하기에 이릅니다. 위기/청소년이 상담실에서 경험하는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담자가 상상할 수 없어서 번역되지 못한 내담자의 언어는 상담자의 숙제이지 결코 정상성 밖으로 버

려질 이상 증상이 아닙니다.

위기/청소년이나 LGBTQIQA 청소년의 세계는 실재합니다. 그들 청소년과 만나려면 그들 세계의 언어를 풀어야 합니다. 고통이 개인의 기능장애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특정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며 겪는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의 결과라는 인식을 지닌 채, 개인의 상담 작업이나 상담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에 원인이 되는 구조적인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역할을 확장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담자에게 닿기 위한 상상력, 그들의 언어/비언어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상상력을 뒷받침하면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마음 열 계기를 마련하고, 원할 때 원하는 방식대로 상담 받도록 자율성을 지지할 수 있으며, 자신과 맞는 사람과 상담하는 개별성과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건 물론이요,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치유의 순간에 다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기청소년을 만나는 치유작업자들에게 위기의 경험이 부재하다’는 것보다는 위기의 경험을 재구성하지 않았다는 말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같은 경험이 있느냐가 치유의 성패나 유효성을 보증해주지 않으며 각자의 고통은 고유한 빛깔과 냄새와 농도와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누구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고통을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노력할 뿐입니다. 상상력을 한껏 발휘해 위기/청소년에게 닿으려고.

세계는 죽음이지만 세계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행위는 죽음이 아니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위기/청소년의 생생한 증언과 부끄러운 치유 현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일이 고통스러웠지만 오로지 고통스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설레는 시간을 나눠주신 연구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1%의 어떤 것¹⁾

- 심아라

(사)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한다. 그 기준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잘 산다는 의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믿음, 건강, 기쁨..등'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관계에서, 자신의 일에서, 다양한 경험 등을 통해 느끼고 알아갈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을 인권이라고도 하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¹⁾에도 명시되어 있다. 예외는 없다!!

본 토론자는 성매매, 위기청소년 글귀 모두 명시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기청소년 중에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으며, 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갖게 되는 마음은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는 것이다.

고정된 해석 vs 확장된 재해석

발제문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위기청소년의 개념', '자립의 개념과 접근', 자립지원현장에서의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사실처럼 여겨지는 통념들, 협소한 개념적 해석과 접근방법 등을 인권의 망원경을 통해 다시 뒤집어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접근은 사람이 대상화/도구화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뜻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발제문에서 언급되는 용어 중에 '위기청소년', '상담(다양한 형태의 심리치료를 포함한 정서지원)'은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고, 다양함과 변화를 이전보다 잘 받아들이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틀렸더라는 시선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가까운 예로 본인은 가족 중 한명에게 상담을 권했을 때, 자신을 정신병자로 취급하냐는 핀잔을 들은 경험이 있다.

'위기청소년'.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일탈, 위험, 결핍, 부적응 등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런 시간을 겪고 있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과 설 수 있고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과정을 잘 극복해서 나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람과 환경이 없다면 그는 '위기'의 상태에 놓인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상태를 벗어나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소년이 현재 놓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위협의 요소가 있는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사람,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 설 수 있는 곳 등이 없다면 '위기청소년'의 상태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기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알고 있는 공공서비스 기관의 실무자들은 그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안할 수 있으며, 선택의 몫은 당사자인 청소년이 하게 될 것이다.

확장된 재해석이 필요한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성매매'이다. 성을 단순히 사고파는 개인(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성은 무엇이기에 물건처럼 사고판다고 할까? 등 근본적인 물음부터 국내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동향, 그리고 맞물리는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을 함께 놓고 해석할 때 인권은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미 국외의 흐름은 성매매를 인신매매의 범주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으며²⁾, 우리의 접근 성매매는 대가를 빌미로 한, 상업적 '성폭력'이고, '성 착취'로 확장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³⁾

또한 '자립(自立, self-reliance)'에 대해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톡' 하고 나오는 말이 "무슨 일 하기로 했어?/ 돈 많이 모았어?" 등 경제적 자립을 먼저 떠올리며 얘기한다. 하지만 자립과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경제적자립/ 취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오히려 네트워크/연대, 정서적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개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화 필요, 의사결정과 주체적 선택 등을 자립을 설

2) 「“성적 인신매매 및 성매매와 관련한 바람직한 용어”를 읽기 전에」, 리사 L. 톰슨; 여성과 인권 2013년 하반기(통권 제10호) 게재 재인용, pp138~pp146.

「인도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의 재통합과 전례: 개념적 틀」, 소나 판데이/ 하레 람 테와리/ 프라딕 쿠마 보우믹, 2013; 여성과 인권 2013년 하반기(통권 제10호) 게재 재인용, pp147~pp177.

3) a. 인신매매는 '착취(성매매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노예제나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장기 제거 등 포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남용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이다. 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의 주체를 국가와 단체, 개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유엔의 국제범죄조직 방지협약)-

b. 성 착취 인신매매는 '상업적 성행위의 목적으로 인신을 모집, 은닉, 이동, 제공 또는 취득하는 행위'이다.-2000년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 103절 9항, 미국연방법전-

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의 지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학문을 벗어난 현실에서는 여전히 자립은 경제적 자립만을 내포하는 듯이 통용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전보다 상담(다양한 형태의 심리치료를 포함한 정서지원), 정신과 상담 등에 대한 인식이 수용적으로 변했다지만 아직도 상담/ 정신과 진료 등을 제안 받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은 '나를 정신이 이상한, 잘못된 사람 취급하는 것인가?'인 것 같다. 아마도 '상담을 받는 사람'에 대해 언론 매체를 포함한 주위에서 보여준 태도나 행동, 접근이 부정적이고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용어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이 아닌, 그 사회의 가치와 기준, 문화, 인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아가 불리어지는 것에 그 의미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명명화 된다. 위의 각 용어에는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는 언제나 '사람 중심 즉 청소년 중심'으로 다양한 고민과 접근을 통해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그들을 만나는 실무자의 몫인 것이다. 그럼에도 그 과정 속에 결정적 선택의 주체는 결국 당사자인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의 실제 vs 경험의 해석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심리지원사업이라고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업무가 진행될 수가 없음을 먼저 밝힌다. 행정업무상 '상담 및 사례관리'라고 명시하지만, 실제 청소년들을 만나는 모든 순간이 심리지원이고, 상담이고, 사례관리인 것이다. 다만 그 경중이 다르기에 접근의 깊이나 방법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하다.

트라우마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일회적인 사건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사건에 비해 사람에 의해서 장기간 지속되어온 트라우마 사건(아동학대,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은 더 많은 심리적 후유증을 보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매매 즉, 성 착취 인신매매는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성매매 즉, 성 착취 인신매매에 노출된 여성은 수많은 신체적·정신적 문제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중 다수가 성 착취에 따른 트라우마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남용, 불안장애, 자해행동, 자살충동, 알코올 중독, 성도착 행동, 사회적 고립감, 무기력, 우울, 불안, 분노, 정서조절의 어려움, 타인 불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 이유 없이 몸의 특정부위가

아픈 것과 같은 신체화, 일시적인 기억상실이나 멍해지는 것과 같은 해리 증상과도 같은 모습 등 매우 많고 다양하며, 어느 것 하나 작다고 치부할 수 없는 것들 뿐이다.

더 슬픈 현실은 현재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 대다수가 위의 어려움과 더불어 학교내 집단 따돌림, 집단 폭행, 임신, 출산, 가정 폭력 또는 방임, 성폭력, 주변의 낙인 등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로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일상생활 지지나 기본적 상담 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심리적 어려움의 호소, 반복되어 나타나는 위험한 행동이나 위험한 상황, 자신의 행동과 삶의 패턴이 이해되지 않는 청소년이 자신을 정신병자 같다고 괴로워하는 모습 등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무수한 고민과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실무자의 선에서는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극명하게 보였다. 실무자에게는 성매매 청소년을 이해하면서 전문적인 개별심리상담이 가능한 상담사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⁴⁾

감사하게도, 2016년 (사)함께걷는아이들의 자몽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 전문적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아띠아토심리지원단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1년동안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필요성에 의해 진행된 사업이었기에 심리지원단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전 작업과 더불어 상담하는 기간에도 슈퍼비전을 통해 더 민감하고, 확장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경험과 현재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청소년들에게 다시 돌아갔다고 보인다.

사례회의를 통해 슈퍼바이저⁵⁾가 다양한 의견과 생각, 관점의 전환 등을 주었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과연 그동안 못살고 있었던 것인가?, 그것을 상담으로 고치는 것인

4) 적은 예산의 한계로 인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확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의료/심리지원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서류제출부터 시작하여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 시간대비 사용 가능예산이 적은 편이라 시도했다가 포기하기도 함.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구비도 만만치 않음.

구마다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문턱이 낮아서 대상자로 빠른 시일에 선정이 가능하나, 보통은 연계된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에게로 또다시 연계가 되며, 나름 검증된(성매매에 대한 인식 또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식 등) 의사인지 확인 불가.

5) 아띠아토 심리지원단 슈퍼바이저: 윤영옥 교수(윤영옥 미술심리 연구소 소장)

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며,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자신의 삶에서 잘 살고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⁶⁾

. “상처를 받으면 그 자체가 ‘자원’이 된다. 그 자원을 잘 찾아서 청소년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 “관계를 경험하게 하소서.” 상담자와의 만남을 통해 안정되고, 건강한 관계의 경험이 청소년에게 ‘재경험’이 된다.

. “이 시간(상담시간)은 너를 위한 시간이야”

. “스스로를 통찰하게 하는 것이 중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차리고, 단단해지고, (위험한)상황 속에서 나오도록.

. 상담사도 상담 중에 어떠한 것이 견드려지면 힘들고, 위축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억누르고 상담을 진행하기보다 오히려 청소년에게 힘든 감정을 얘기하고,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다양하고 수많은, 좋은 경험들 그 자체가 아닌, 어떠한 경험이던 그것을 나에게/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은 그들의 삶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재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이미 박혀있던 보석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또한 그들은 실무자에게 도전을 선사하는 좋은 스승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다짐으로...

심리지원사업이라는 단어는 거창한 프로그램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청소년을 만나는 실무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지원을 다양한 형태로(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일상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병원에 가면서 오고가는 다양한 감정의 교류, 특별한 대화를 하지 않지만 같이 길을 걸어갈 때, ‘밥 먹었어?, 아픈데는 없어?’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 등) 이미 하고 있을 것이다. 발제문에서 보았듯이 자신에 대한 통찰, 깨달음 등은 상담시간에만 국한되어서 나타나기 보다는 일상의 소소

6) 이때 덧붙여 슈퍼바이저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문제상황, 어려움, 바꿔야 하는 것들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보석’으로 박혀있다는 표현을 하심. 상담자는 그것을 잘 발견하고, 빛이 나게 닦아주는 것이라고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 이야기를 친밀하게 나누는 순간들이 쌓인 어느 지점에서든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볼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있으면 생각과 시야가 환기 되거나 확장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청소년을 만나는 실무자가 먼저 즐겁고, 행복하며, 아프지 않았으면 한다. 그 래야 만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주어진 삶을 잘 살 수 있으니까말이다.

참고문헌

- 김명숙.,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과정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 접근」,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1.
- 정재훈., 「성매매 방지정책과 자활지원사업」, 여성과 인권 2013년 하반기(통권 제10호) pp14~pp28, 2013.
- 주혜선., 「연속되는 트라우마 경험으로써의 성매매, 자원 결핍의 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회복으로의 변화에 대하여」, 이화 트라우마 연구실 전임연구원, 다시함께센터 뉴스레터 제21호_「성매매 피해/생존자와 트라우마」, 2012(서울특별시다시함께센터 홈페이지-해피로그 이모저모-새소식). I
- 최대현., 「십리극이 성매매촌여성의 트라우마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이코드라마 학회지 vol.11, NO 2, 2008.
- 김지혜 진행, 기선희 정리., 좌담회; 지속적인 성매매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대안모색, 여성과 인권 2013년 하반기(통권 제10호) pp47~pp61, 2013.
- 크리스틴 A. 홈, 스테파니 J. 우즈., 「피해자 현장지원자들이 말하는 성착취 피해 여성들의 트라우마와 그 영향」; 여성과 인권 2016년 하반기(통권 제16호)게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6.
- 리사 L. 톰슨., 「“성적 인신매매 및 성매매와 관련한 바람직한 용어”를 읽기 전에」; 여성과 인권 2013년 하반기(통권 제10호)게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 소나 판데이, 하레 람 테와리, 프라딧 쿠마 보우믹., 「인도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의 재통합과 전례: 개념적 틀」; 여성과 인권 2013년 하반기(통권 제10호)게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2016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연구 발표회

마음의 관리? 마음의 권리!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무엇을 묻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발 행 인권교육센터 '들'

발간일 2017년 2월 16일

후 원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디자인 영서

문 의 인권교육센터 '들'

dlhredu@gmail.com | 02-365-5412